

막장사람들

- 폐광촌 이야기 -



태백문화원

막장사람들

- 폐광촌 이야기 -



태 백 문 화 원

이 사진작품집은 태백시의 지원을 받아 태백문화원에서 펴냅니다.
탄도(炭都) 태백시는 전국 최대의 석탄산지인 태백탄전의 중핵도
시로 먼훗날 후손들에게 사라진 막장을 알려주기위해 기록으로 남
깁니다.



태백시는 전국 최대의 탄광도시입니다.

그러나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영세·취약탄광들이 서둘러 문을 닫으면서 태백은 교육, 관광, 광공도시로 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태백문화원이 사라진 영세, 취약탄광들의 흔적들을 사진집으로 펴 내 후손들에게 기록자료로 남기려고 합니다.
많은 성원 보냅니다.

태백시장 장 재 현



석탄광 폐광뉴스가 들려올때 우리는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사라질 흔적들을 기록으로 남겨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다행히 류제원씨 (사진작가, 태백문화원 운영위원) 가 오랫동안 촬영한 영세탄광현장 사진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지원으로 사진집을 만드는데 힘이 돼 주신 태백시 당국에 감사드립니다.

태백문화원장 장 인 원

너그들은 잘살아라

폐광으로 실직(失職)한 50대의 한 탄광노동자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에게 「너그들은 잘살아라」
며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허기와 가난으로 얼룩진 60년대의 보릿고개를 피
해 막장을 삶의 터전으로 찾아왔던 한 농촌청년이
이제 50대의 탄광노동자로 막장을 떠나는 것입니
다.

벌써 애환의 삶터는 무너지고 흔적이 지워지고 있
습니다.

우리는 막장사람들의 「무언의 고별사」를 남기고 싶
었습니다.

이 사진집은 민영탄광개발 이후 폐광될때까지 별
로 변하지 않은 영세탄광(속칭: 쫓닥구덩이)의 현
장을 한 집념의 사진가가 추적 촬영한 기록사진입
니다.

흑백으로 강하게 어필되는 특수한 삶의 현장, 분위기,
표정등은 오히려 사진작품집이라고 평가하는게 옳을
것입니다.

막장사람들.

이들은 산업역군이었고 자식들을 위해 모든것을 바
친 「순애보」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 풍요로울 후손들에게 피맺힌 어제의 얘기들
을 남겨주려는 이 사진집의 의미를 되새겨 보십시
다.

기획: 태백문화원 부원장 김 영 훈

막장사람들

애환의 편린들 • 13

막장사람들 • 53

표정·표정·표정 • 91

무언의 고별사 / 김영훈 • 104

기록한다는 의미 / 류제원 • 106

애환의 편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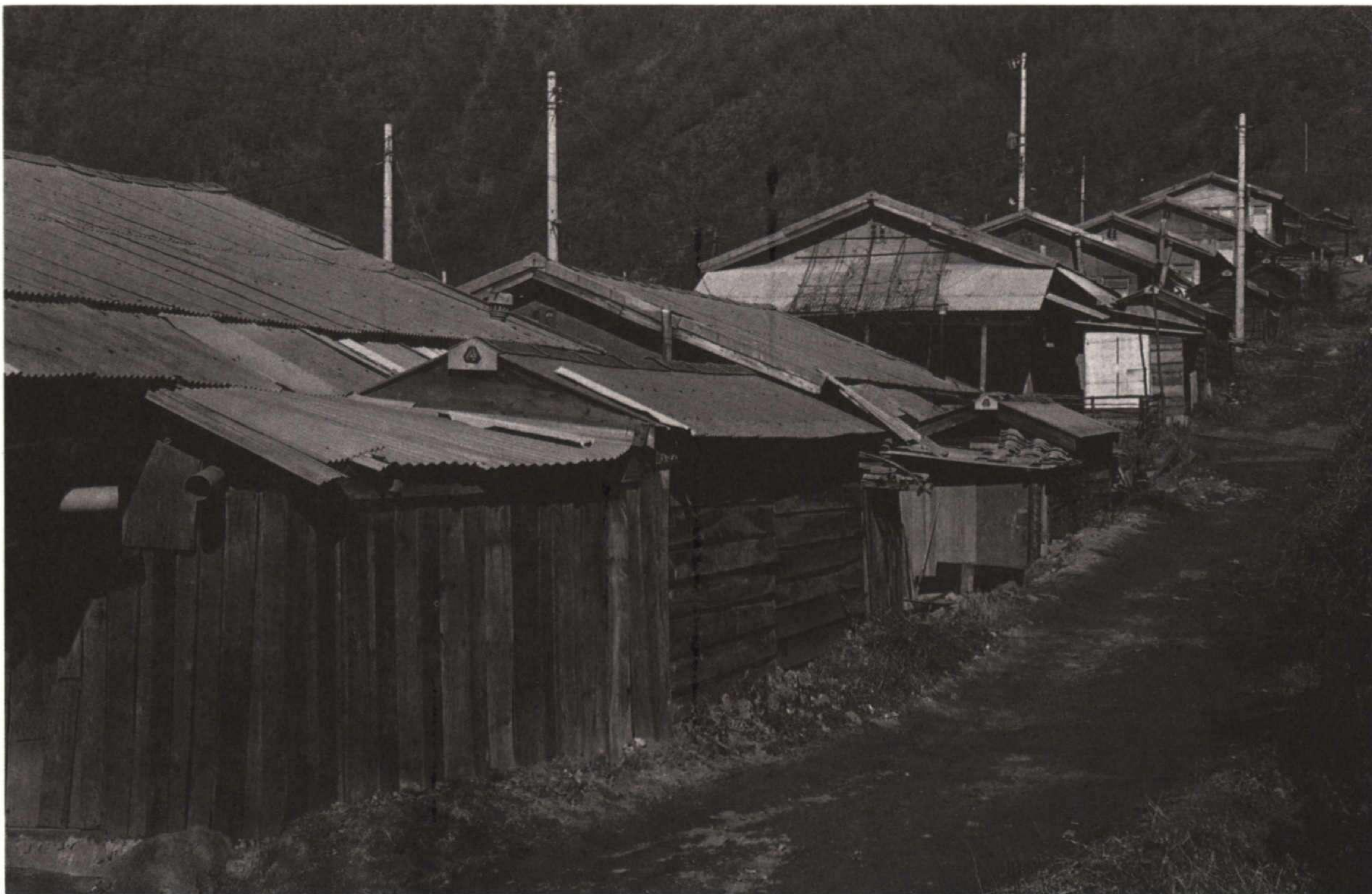
황소의 의젓한 뿔처럼 한때의
명성같은 것은 형체만 남긴 탄광촌.
성냥곽같은 사택, 아무렇게나
아무렇게나 달아낸 가작,
텅비어버린 산원, 고야(창고), 폐석더미.
그래도 그들이 숨쉴때
사랑도 미움도, 우정도
그리고 돼지비개 안주에 소주한잔도
있었거니.....
이제 현대식 아파트, 수갱,
기계화된 탄광들만 남았고,
그 칠성판을 지고 연근(連勤)을
밥먹듯 하던 막장사람들은 사라졌다.



산비탈의 2호연립사택촌, 지금도 흔적처럼 아주 드물게 남아있는 사택촌, 대개는 헐리고 비어졌다. 이집에 살던 막장사람들은 현대식 아파트 사택으로 이주했거나 폐광으로 아예 떠나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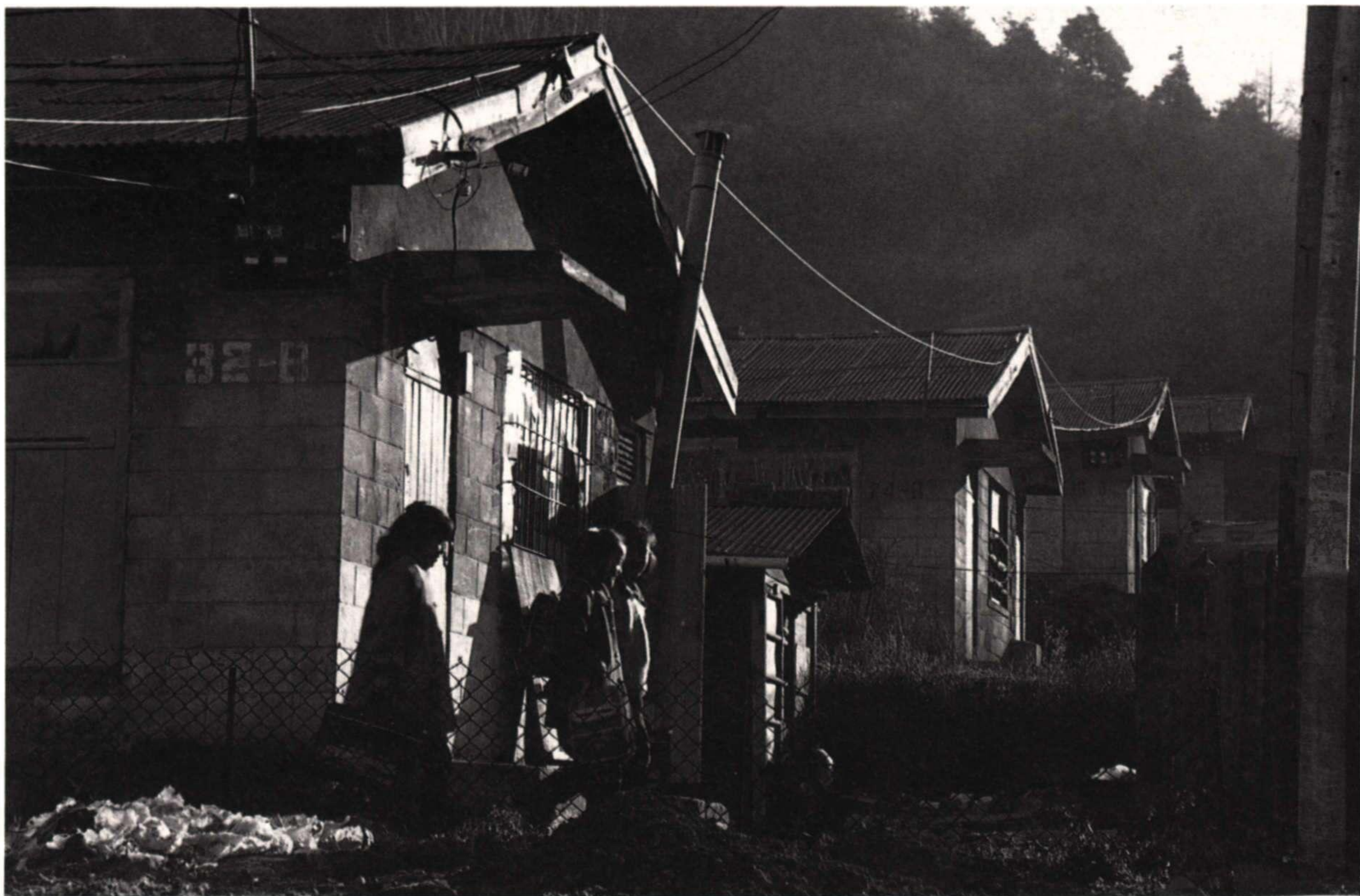
판자집 사택-50년대말 탄광이 개발되기 시작할때는 막장사람들을 「함바」에 쫓겨넣었다. 사택을 짓기시작할때는 9호연립 (한채에 9칸, 한칸에는 1세대 거주) 4호연립, 2호연립이 지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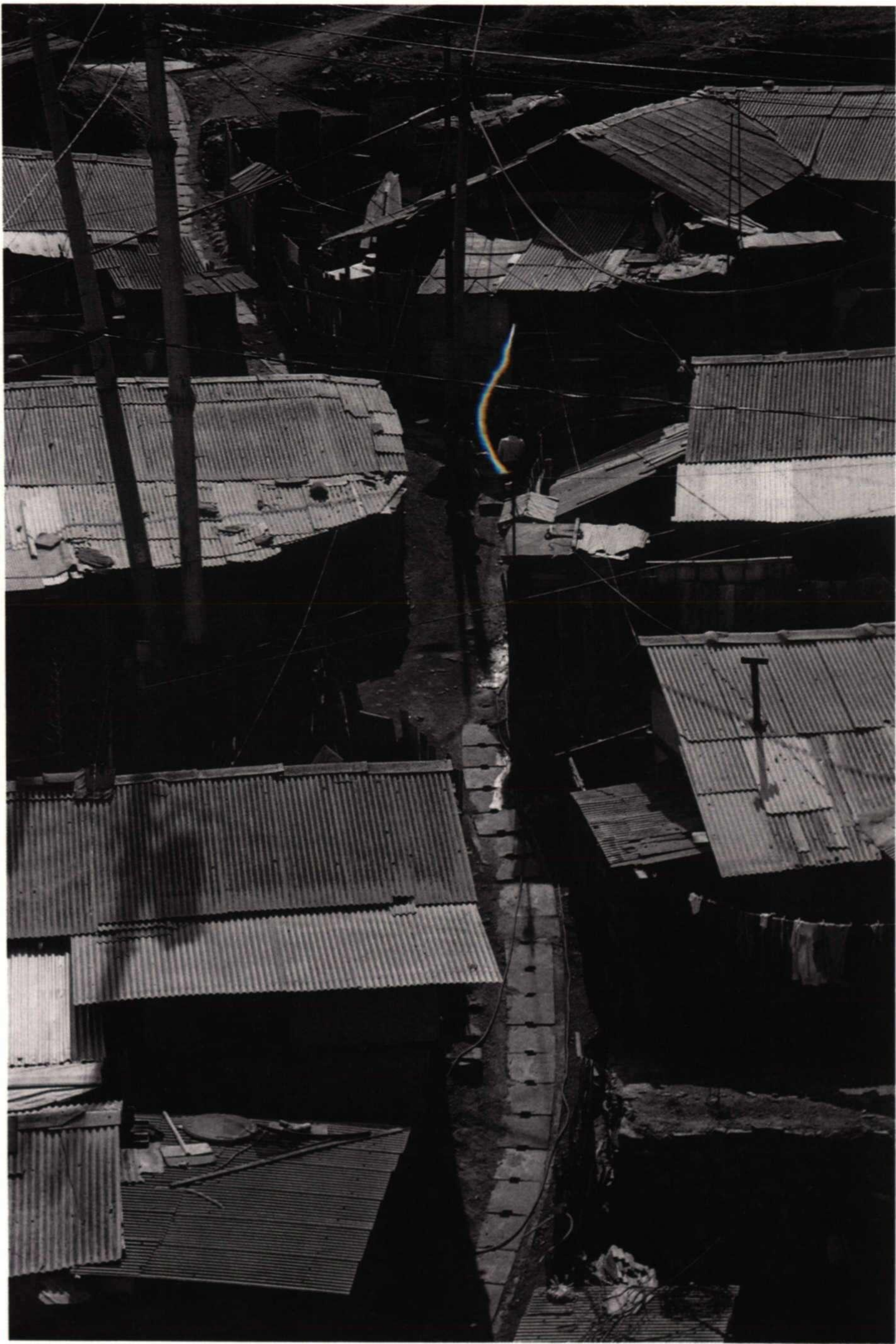
사택가작 - 7명 안팎의 사택에서 둥지를 튼 막장사람들은 부엌살림이 늘면
부엌가작을 붙이고 아들, 자식 생기면 가작방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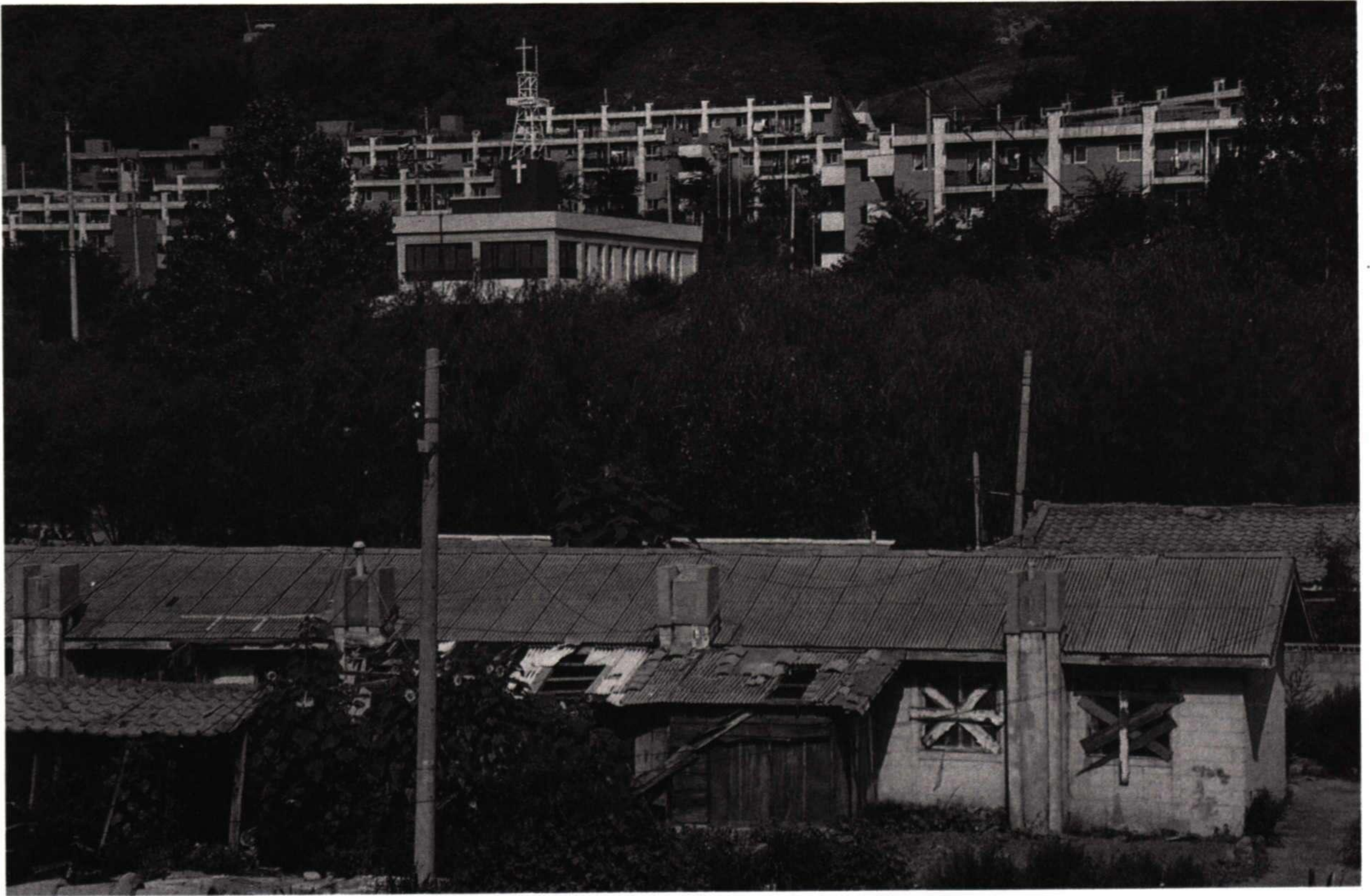
가작사택의 겨울풍경-지금은 사라졌거나 사라지고있는 이 둥지들은 보릿
고개를 허위단신 넘던 고향보다는 배불렀다. 쌀밥은 먹을 수 있었으니까.



막장사람들이 병방일을 끝내고 둥지(사택)로 돌아오면 아들, 딸들은 재잘
대며 학교로 간다. 아침햇살은 희망처럼 쏟아지고



개인사택촌- 탄광은 사택이 모자라면 개인집을 사 막장사람들을 입주시켰다.



30년의 공존 - 사택은 50년대말부터 지어지기 시작했다. 아파트사택은
80 년대에 건축됐다.
태백탄전에는 이렇게 30년이 공존하고 있다.



철부지들의 미소-아빠는 폐광이후가 걱정스럽고 엄마는 살아갈 일이 막
 막해도 탄광사택촌 어린이들은 해맑은 미소로 사택촌을 밝힌다.
 그들에게는 희망찬 미래가 있기 때문이리라.
 5년후쯤, 30년후쯤 이들의 고향은 어딜까?



산원석탄하역장- 폐석더미위로 급하게 흘러내리는 석탄을 트럭이 받아
있었다. 탄먼지는 자욱해도 살아숨쉬던 곳



폐광산원(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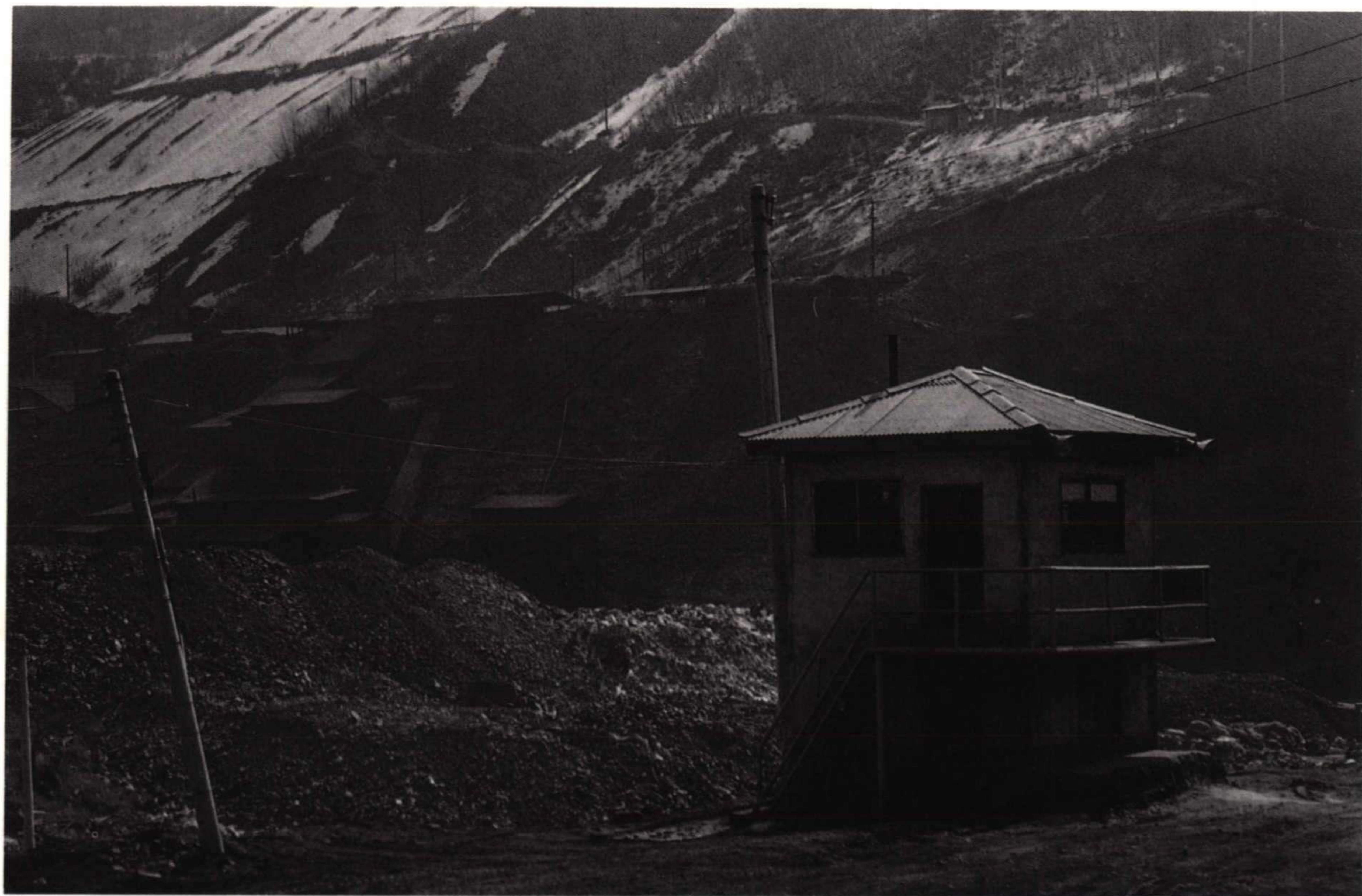
폐광산원(2)



폐석장(1)



폐석장(2)



폐석장(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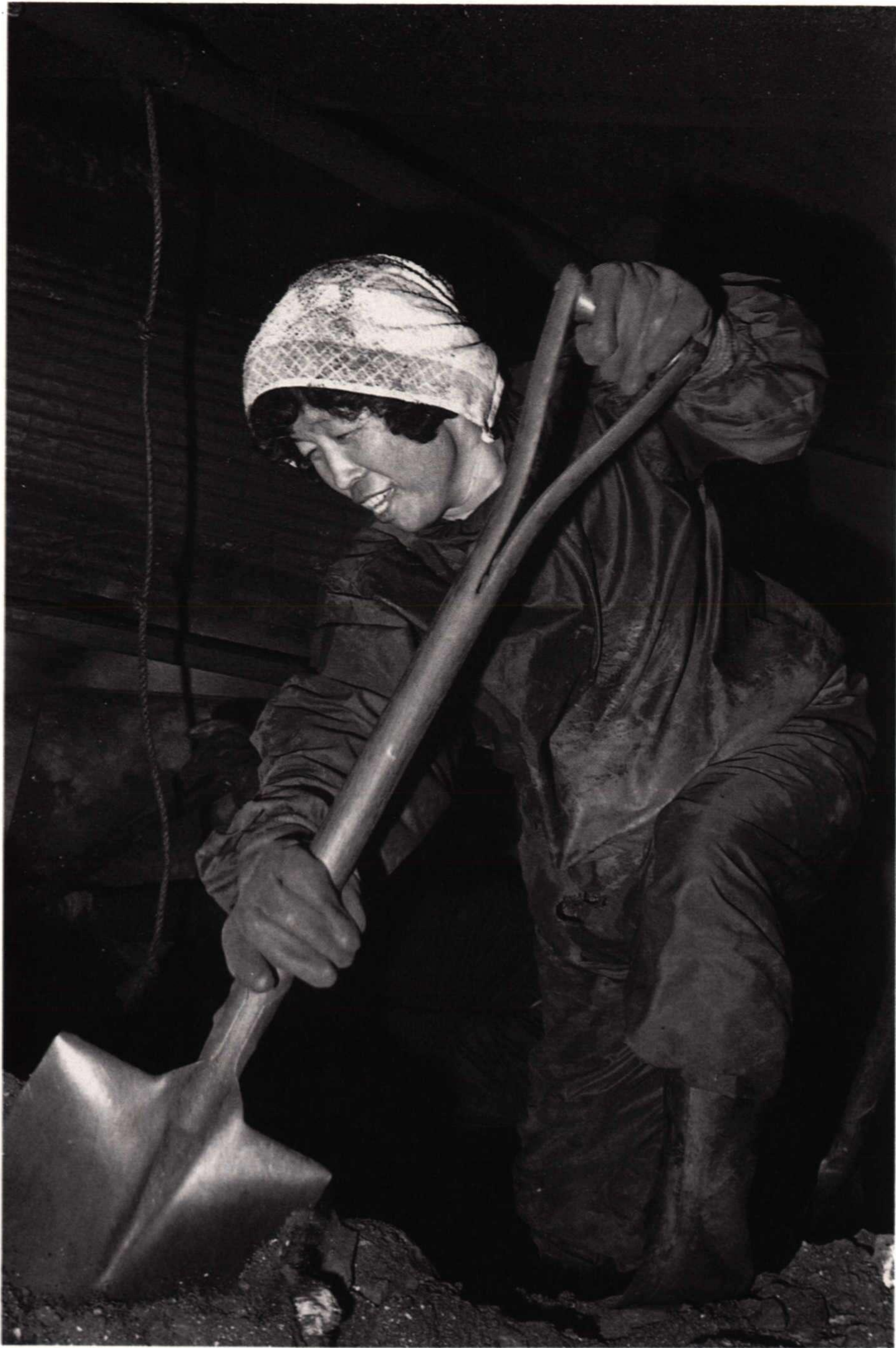
폐광산원(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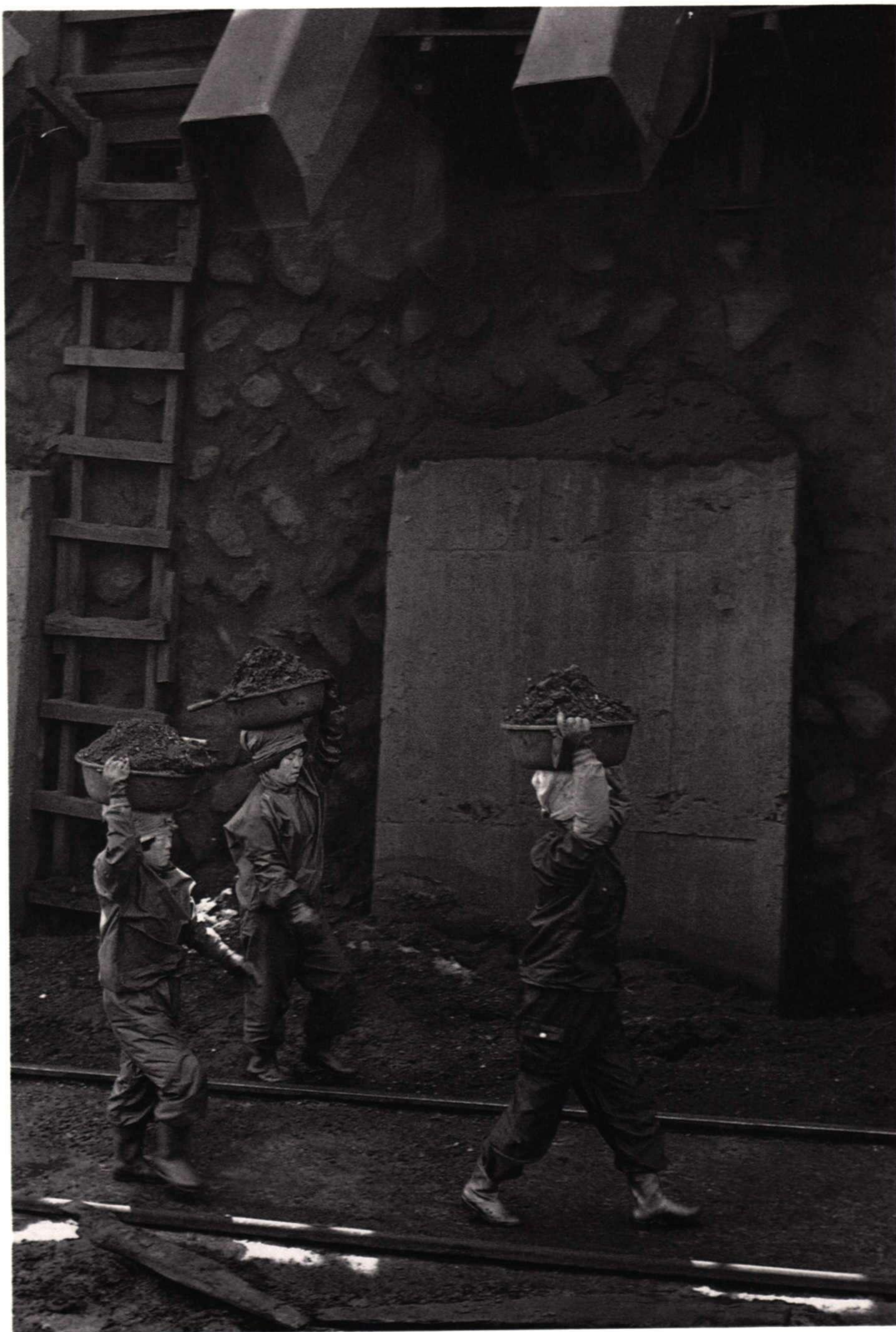
폐광산원(4)



선탄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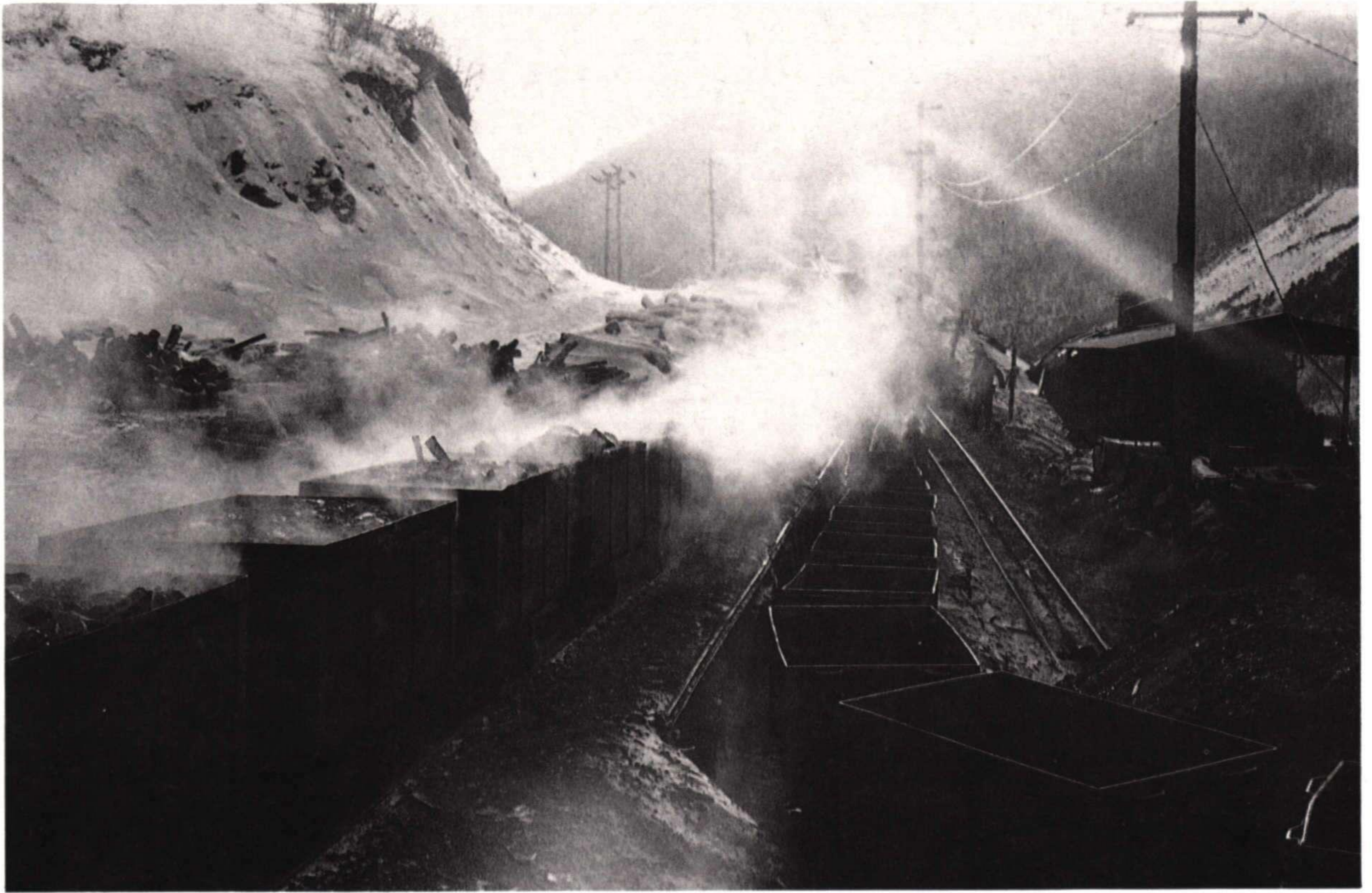
선탄부(2)



낙탄정리부(1)



낙탄정리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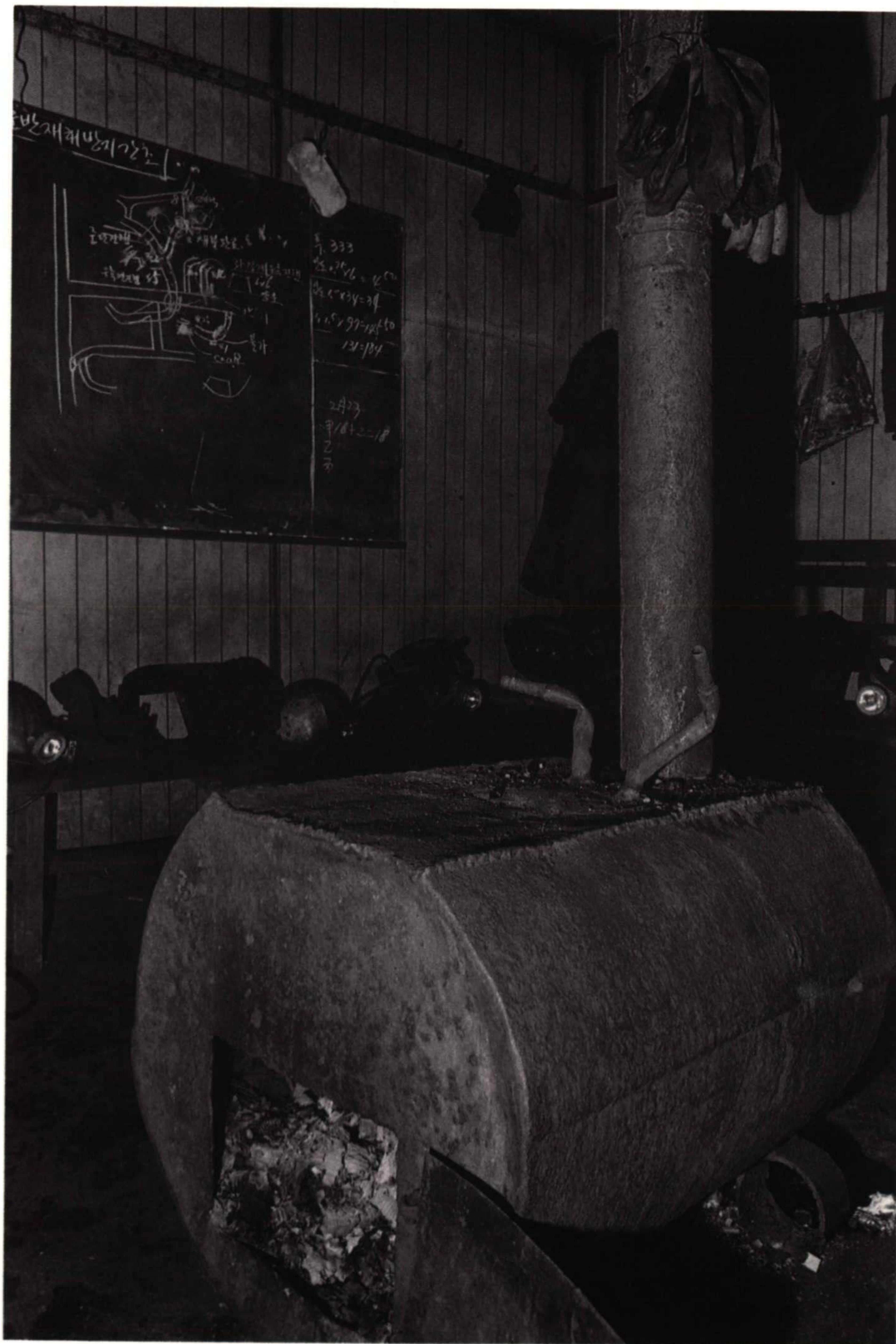
폐석광차- 탄광산원, 폐석광차가 까맣게 높은 산원위에서 하천쪽 비탈에 폐석을 버리기 위해 잠깐 머물면 지열을 머금은 폐석속에서 안개같은 김이 피어오른다.



폐석광차(2)-눈발이 날리는 폐석장, 을씨년스럽다. 그래도 그속에 한달 월
급을 기다리며 땀흘리던 막장사람 들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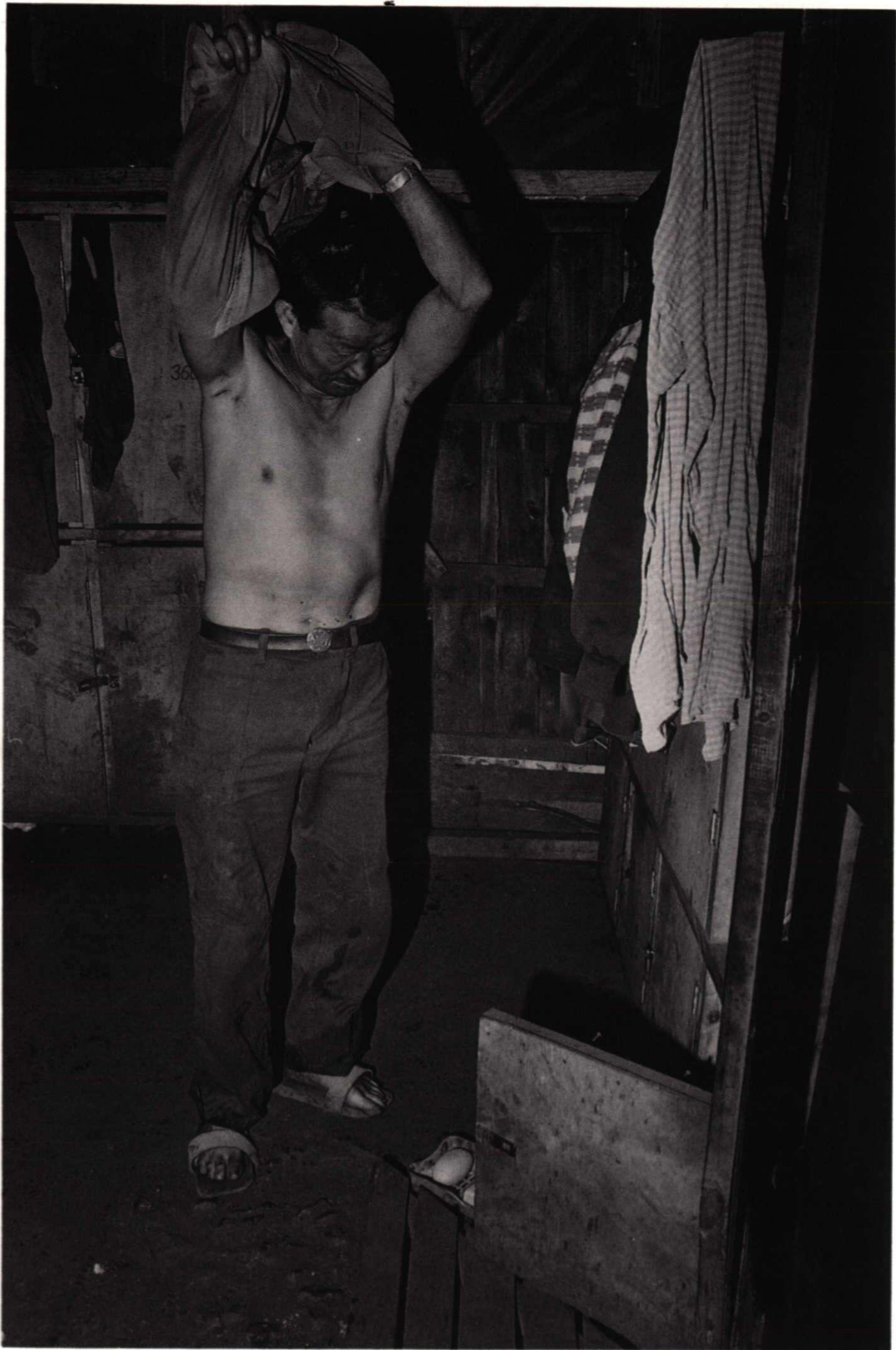
폐석광차(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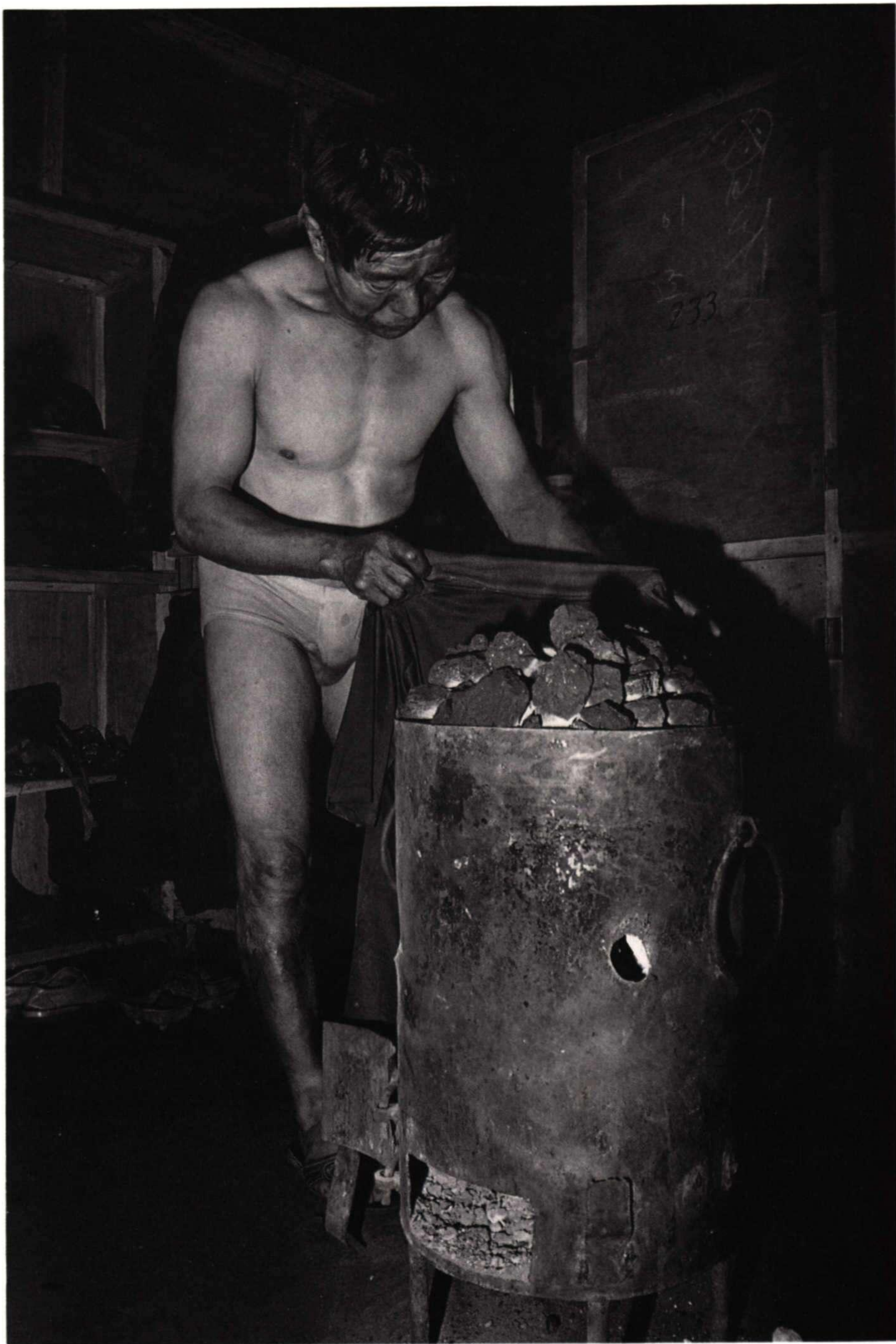
막장사람들의 휴게실-탱크같은 난로, 궁둥이를 붙일 수 있는 의자,여기 저기 보이는 안전모, 안전등, 작업복등, 그리고 흑판에는 막 그림-30년을 버텨온 막장사람들의 휴게실이다.



목욕탕 보일러실 - 한꺼번에 수백명씩 들어가 목욕을 하도록 현장에 지어진 현대식 목욕탕이 탄광마다 구비돼 있다.
그러나 쫄탁구덩이라고 불리는 영세탄광에는 갯목 쪼가리나 탄으로 물을 데워 전신에 묻은 탄을 씻는 이런 목욕탕 보일러실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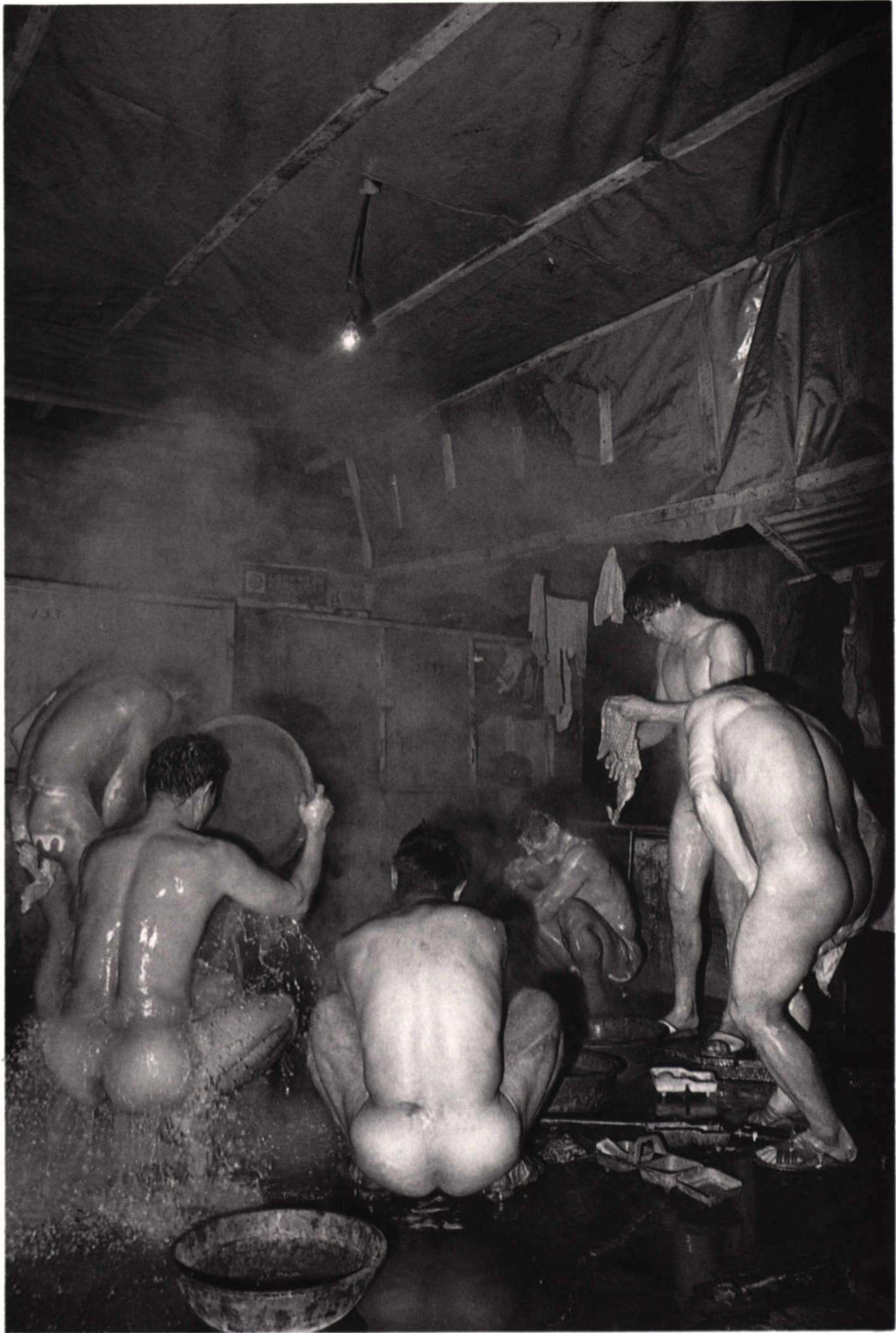
탈의실 - 퇴깁한 막장사람들은 여기서 알몸이 된다.
빛나는 눈, 하얀 이, 그리고 온몸이 검은 탄가루와 땀으로 범벅이 돼 나온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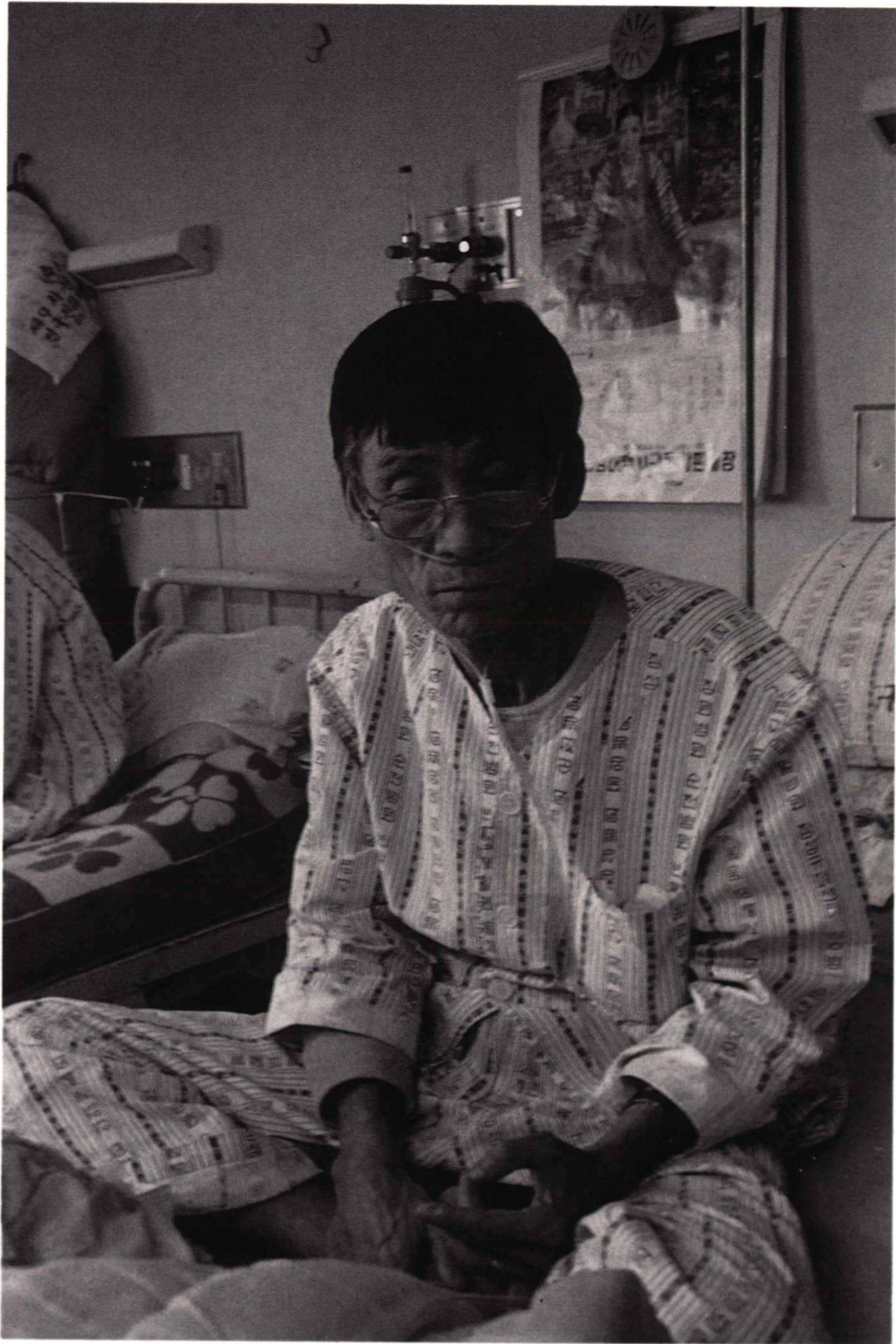
드럼통 난로에 괴탄이 핀다. 목욕을 하고 퇴근할때는 말끔한 출퇴근복을 입지만 내일 입갱때 입을 옷은 두고간다.
그 작업복이 땀에 젖어 두손으로 쥐어짜고 난로불에 말려야 보송보송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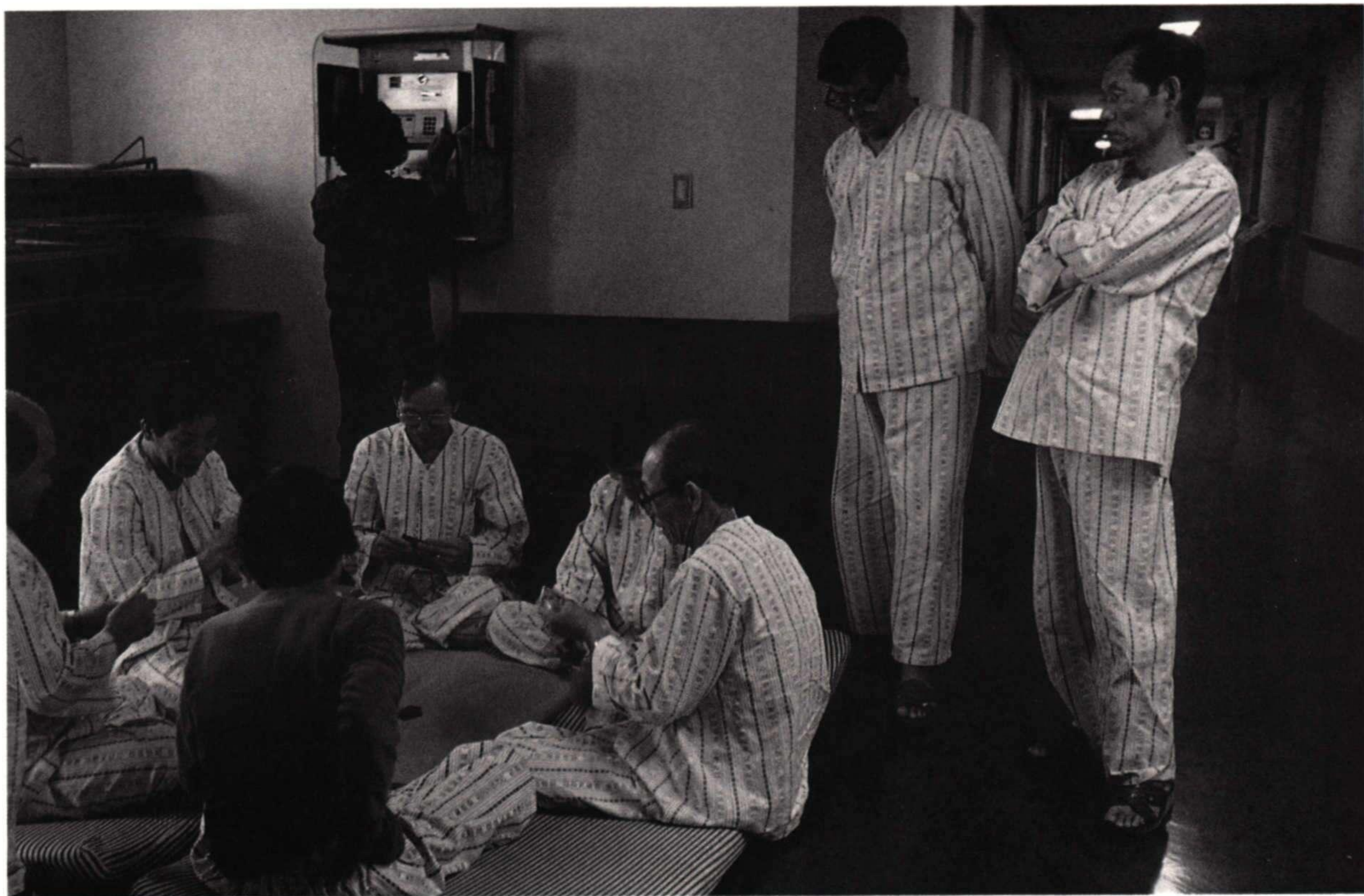
탈의장은 양면성이 있다. 옷을 벗는 사람과 옷을 입는 사람이 공존한다.
오고가는 것이다. 인생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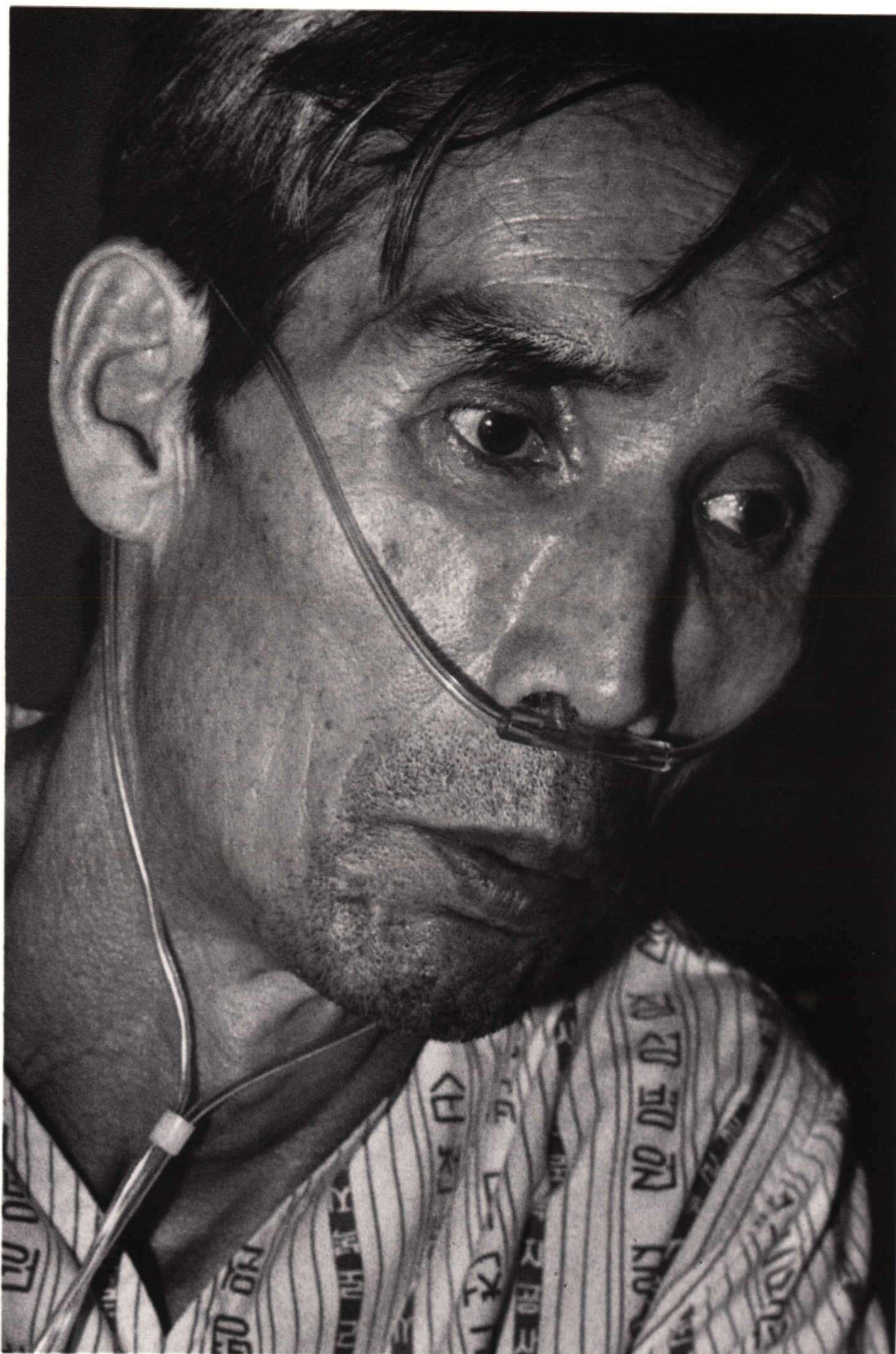
全裸의 막장사람들, 전신에 묻은 탄범벅을 씻어낸다.
목구멍에 묻은 탄가루는 돼지비개로 씻어내고 소주 한잔「카악」들이킨다.



5년이상 막장에서 일하면 불치병인 진폐증에 걸리기쉽다. 그리고 세월과 함께 악화돼 산소호흡기를 달고 병석에 눕는다.



호흡이 가쁘다. 가슴이 찢어질듯 아프다. 지루하고 답답한 진폐환자들은 이렇게 여가를 보낸다. 그것도 경증환자들의 특권이다.



나도 젊은 때가 있었다. 힘깨나 썼다. 인물도 좋았다. 사랑도 했다. 아아
기막히게 굶주렸다. 막장에서 몇번씩 죽을 고비도 겪었다. 그리고 으스러
지도록 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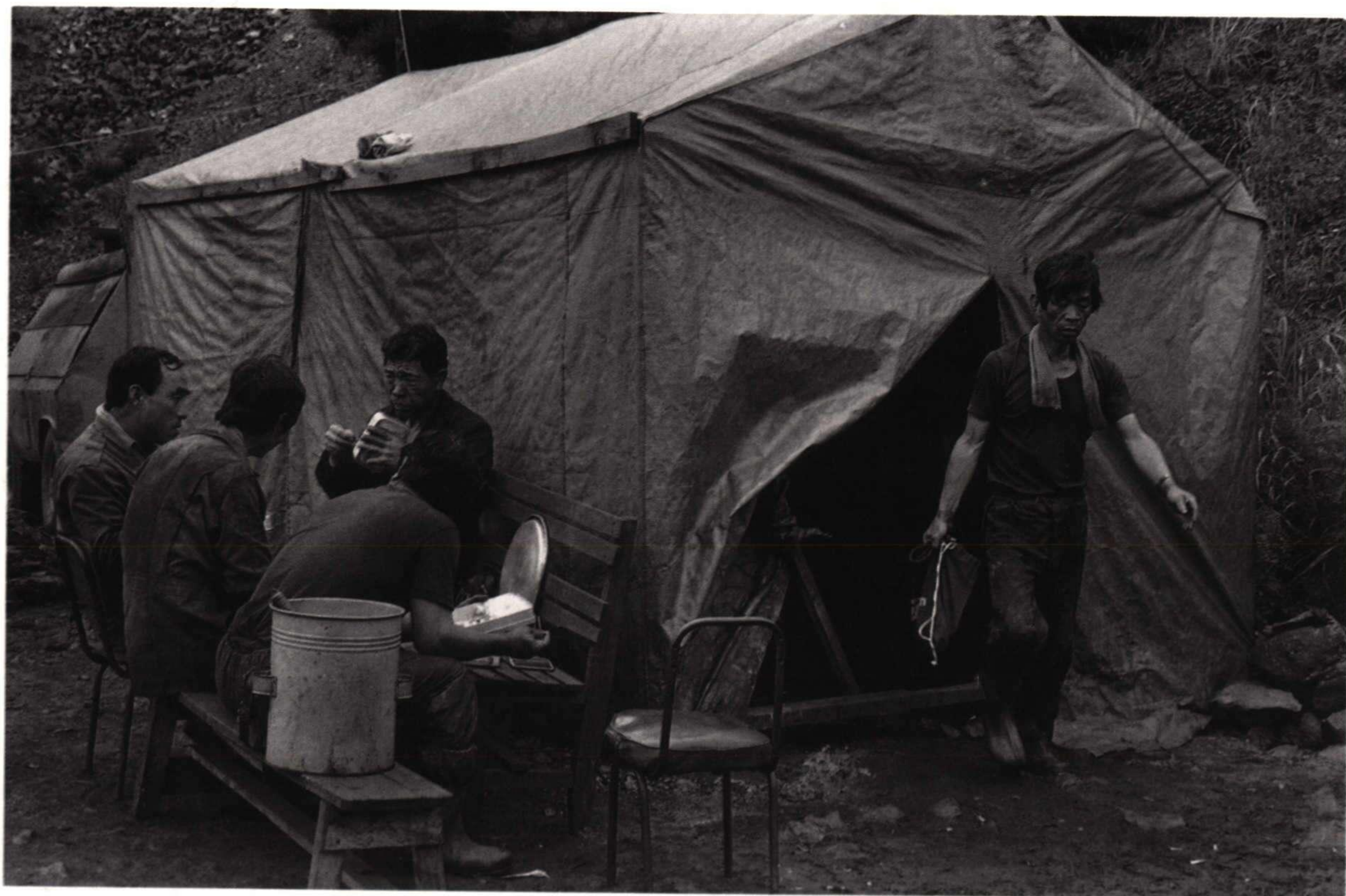
깃발도 올려봤다. 아우성도 쳐봤다. 주먹을 불끈쥐고 충혈된 눈으로 거리
도 누벼봤다.
그러나 그것은 노스탈자의 손수건.



노사분규



폐광바람이 불자 불안한 막장 사람들이 하염없이 앉아있다.
이웃 탄광들이 줄이어 문을 닫는데.....



쫄탁구덩이의 시작-일확천금의 꿈을 안은 탄광업주들은 고구찌(갱도)를 설치하려고 인부들을 고용하고 천막을 친다.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50년대의 모습이다.



점심식사



석탄의 역두상차 작업

막장사람들

슬픈 얘기가 있었다.

배고픈 얘기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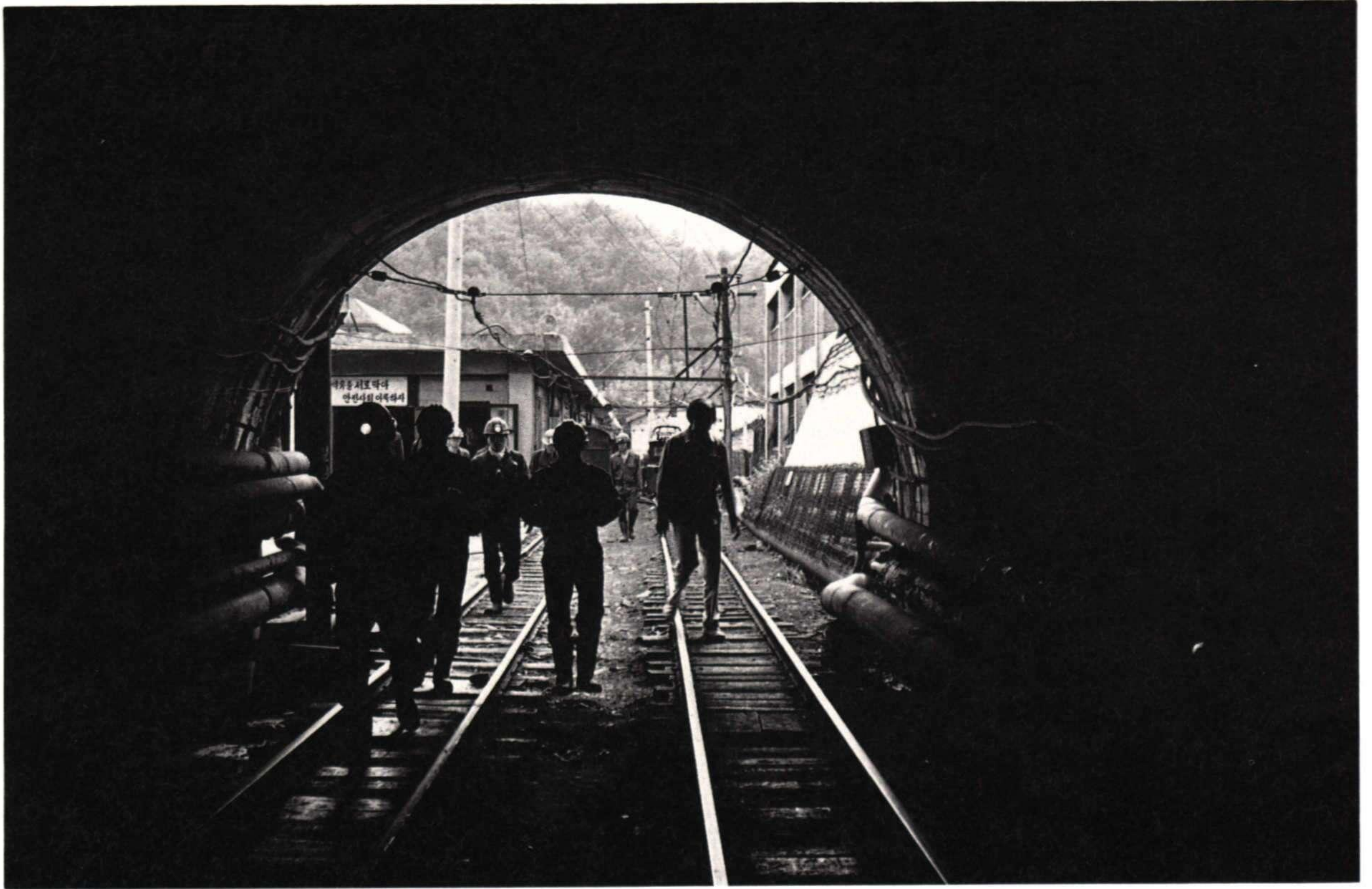
칠성판을 지고 지하 막장에서
청춘을 보낸 막장사람들에게는
끈끈하고 진솔한 삶의 모습들이
진했다.

이제 그 너잔한 모습들은 묻혀버렸다.

아련한 추억으로 알알이 영글던
삶의 현장이 깊고 어두운 땅 밑으로
사라졌다.

막장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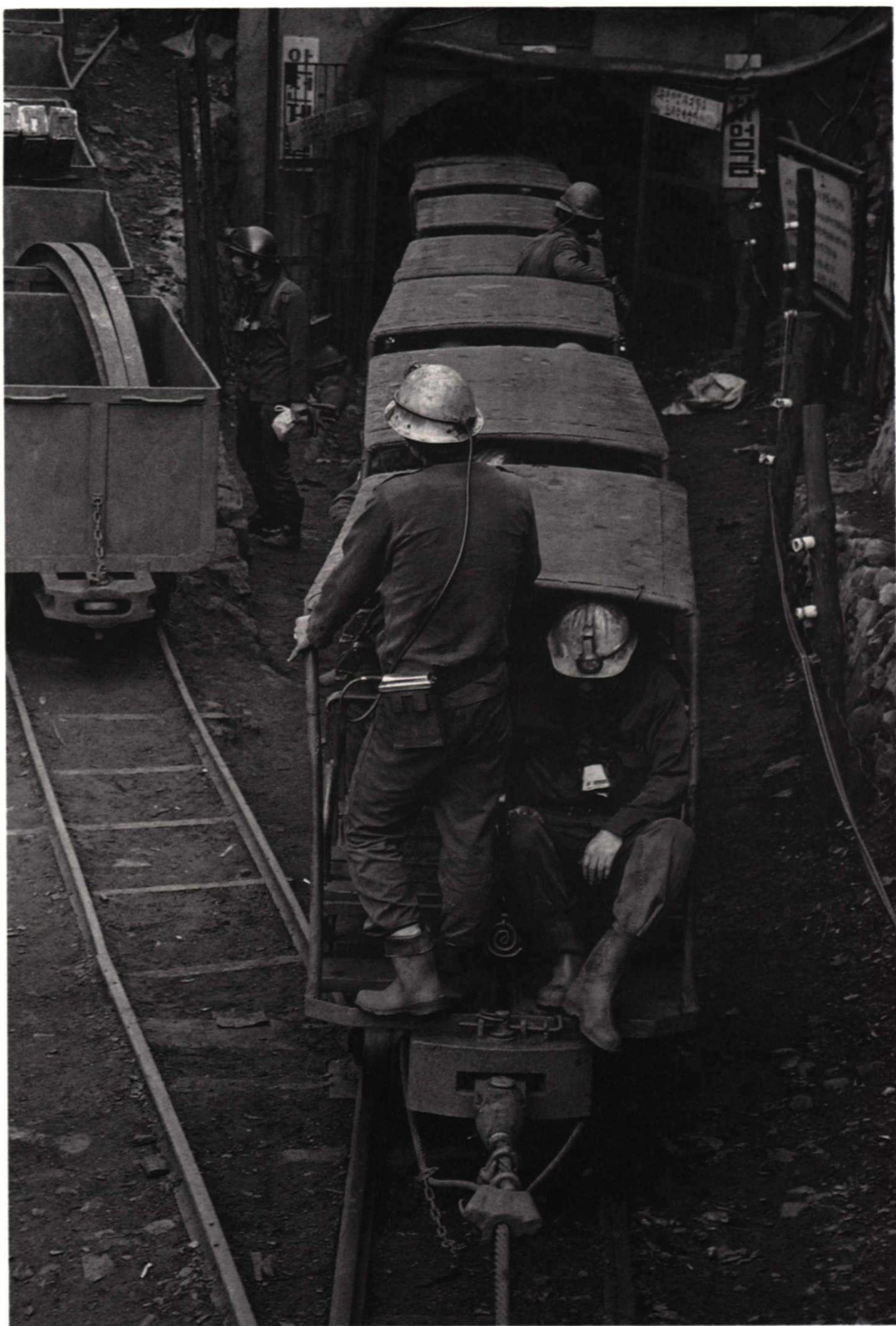
그들은 지금 쏟아지는 햇빛속에
살아숨쉬고 있지만 폐광으로
땅속에 묻혀버린 막장생활은 잊을 수 없다.



입갱(入坑) - 막장사람들의 입갱은 삶의 시작이다.
막장 가득 석탄맥이 존재하는 한 막장사람들의 삶도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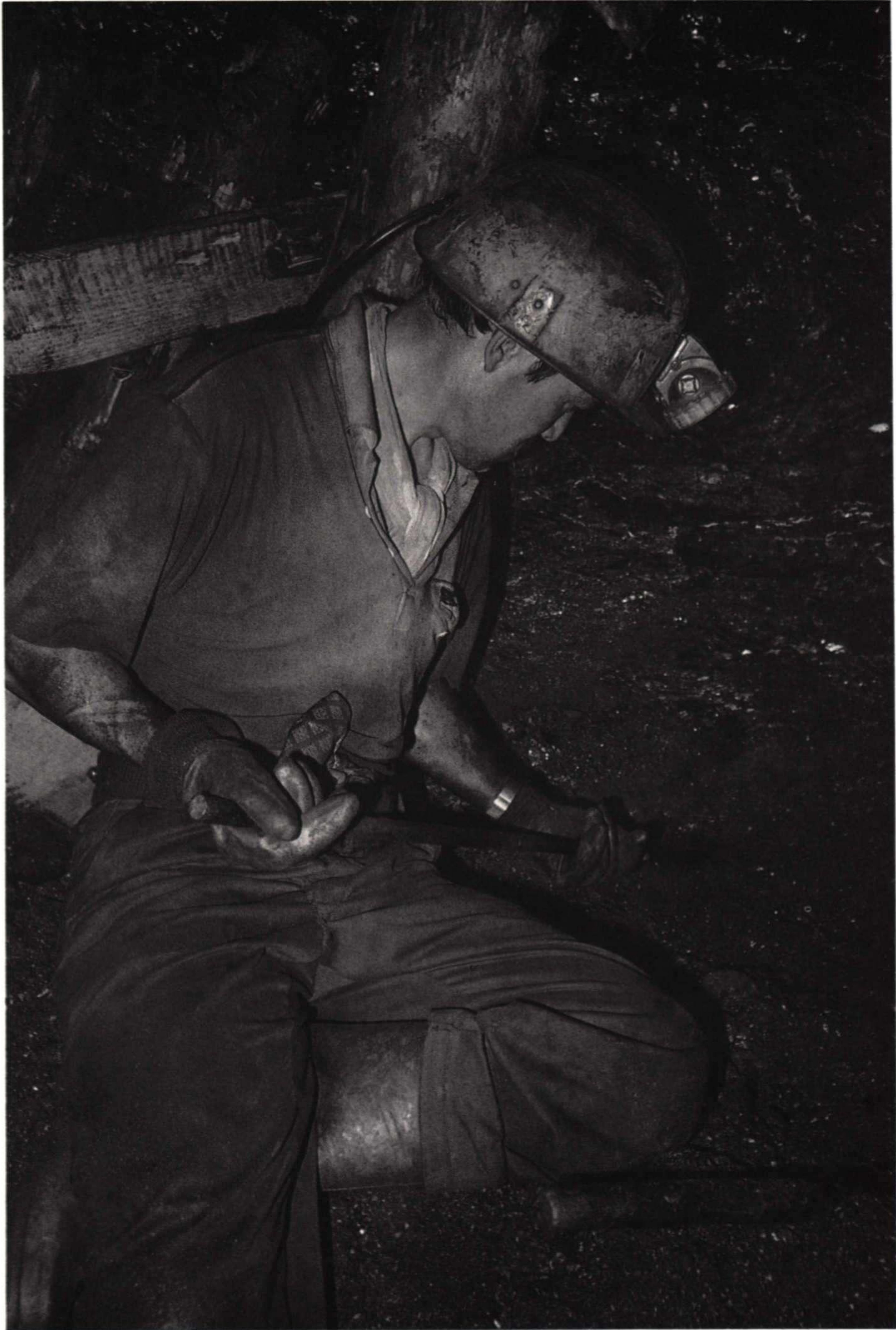
입갱대기-막장사람들의 하루가 시작된다. 마치 군인같은 복장에 장화, 캡 램프가 인상적이다. 한때는...사람 몇명 죽더라도 목표량을 생산하라고 다 구치던 시대에는 「산업역군」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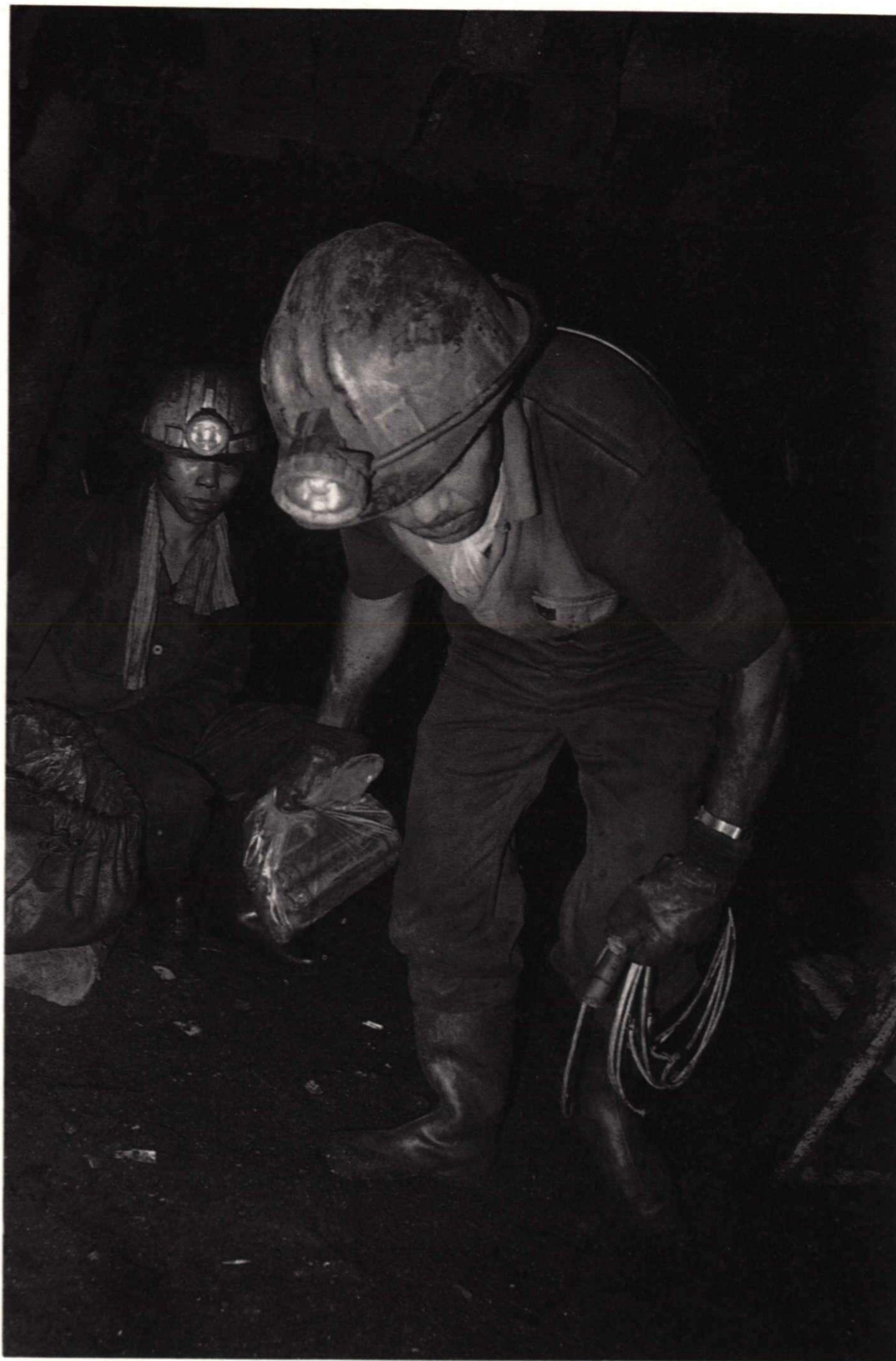
인차입갱-「인차」라는 이름의 상자에 타고 막장사람들은 막장으로 간다.
얼마쯤에서 내려 또 얼마를 걷고 오르막, 내리막을 다시 걸어 땀 투성이로
막장에 도착한다.



광차입갱-영세탄광에는 인차가 따로 없다.
탄을 실어나르는 광차로 입갱을 한다.



발파준비(1)-막장에 도착한 막장사람들은 발파를 위해 훗노미로 탄맥에 구멍을 뚫는다.



발파준비(2)- 화약과 도화선을 준비하고 적당한 길이로 자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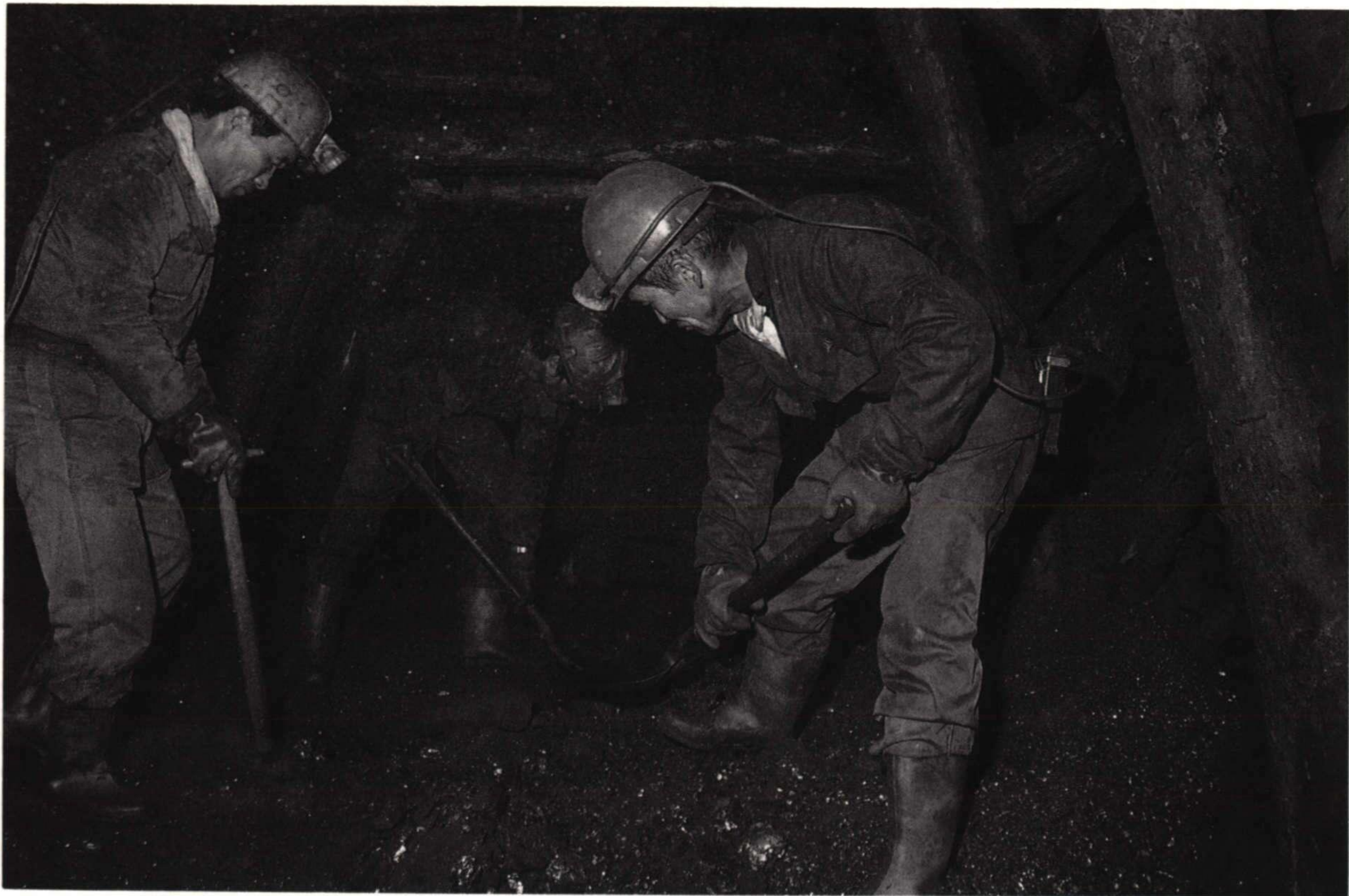


발파준비(3)- 발파구멍을 뚫고 그속에 폭약을 장전한후 도화선에 불을 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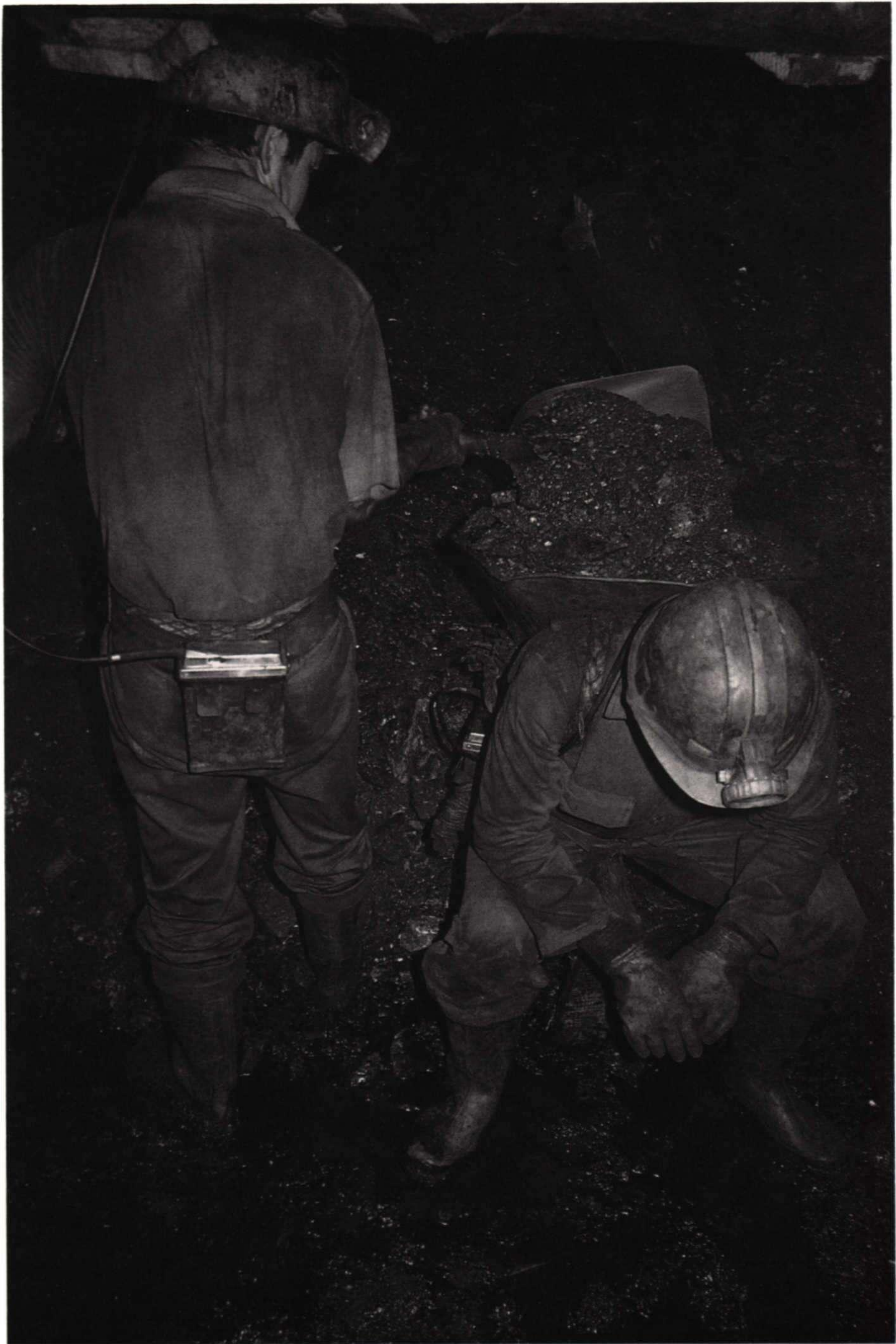
그리고 재빨리 10리만큼 뛰어가 숨는다.

쾅쾅쾅...막장가득 탄가루가 찬다. 천지를 분간할 수 없는 어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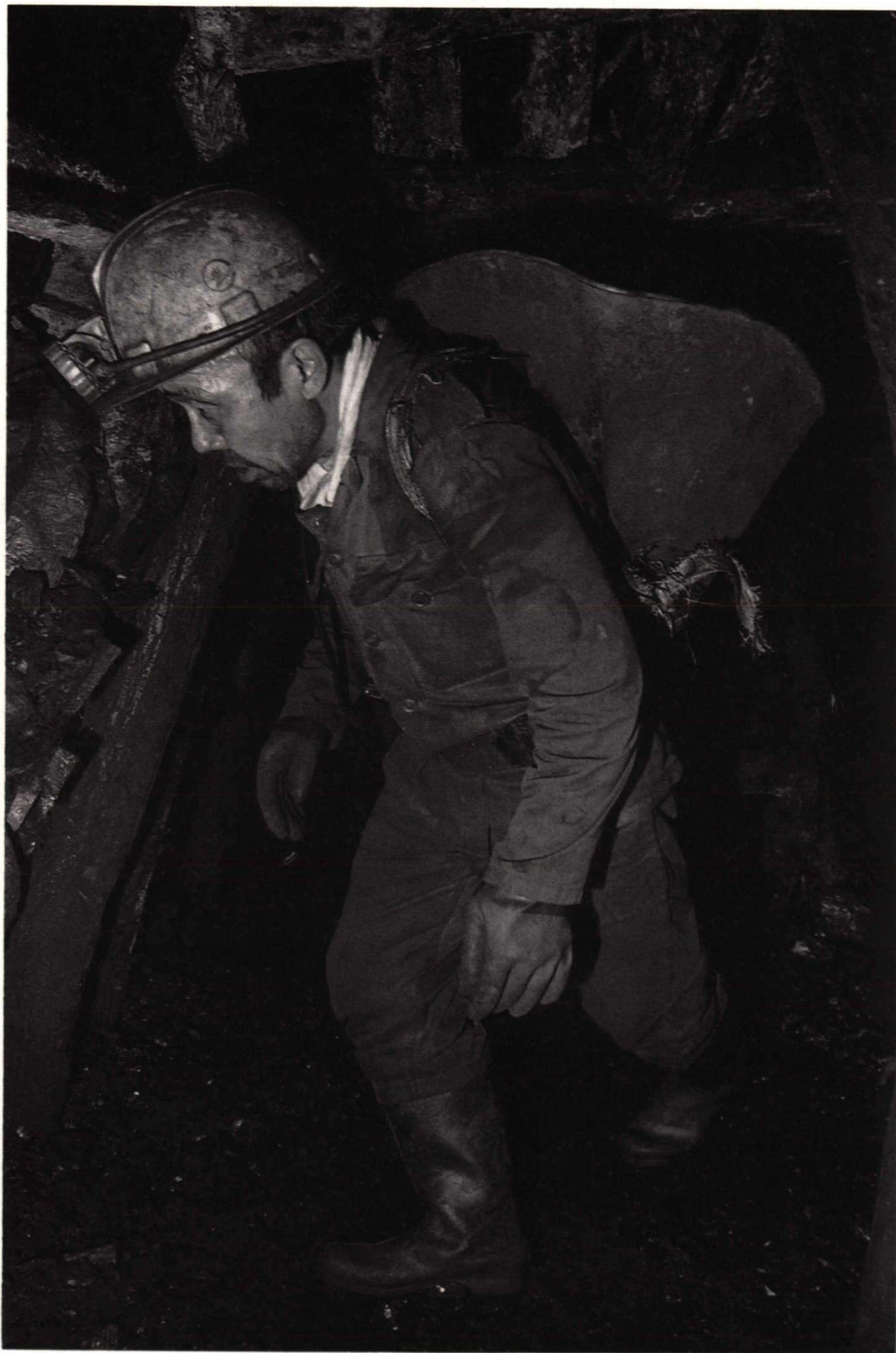
매캐한 화약냄새. 막장은 한동안 운무같은 먼지속.



채탄-발파후 쏟아진 탄을 삽으로 떠 모으고 있다.
지금은 막장까지 벨트, 콘베어가 설치돼 있다.
자욱한 탄먼지, 방진마스크를 쓰라지만 삽질에 숨이 가빠 기피하기 일쑤이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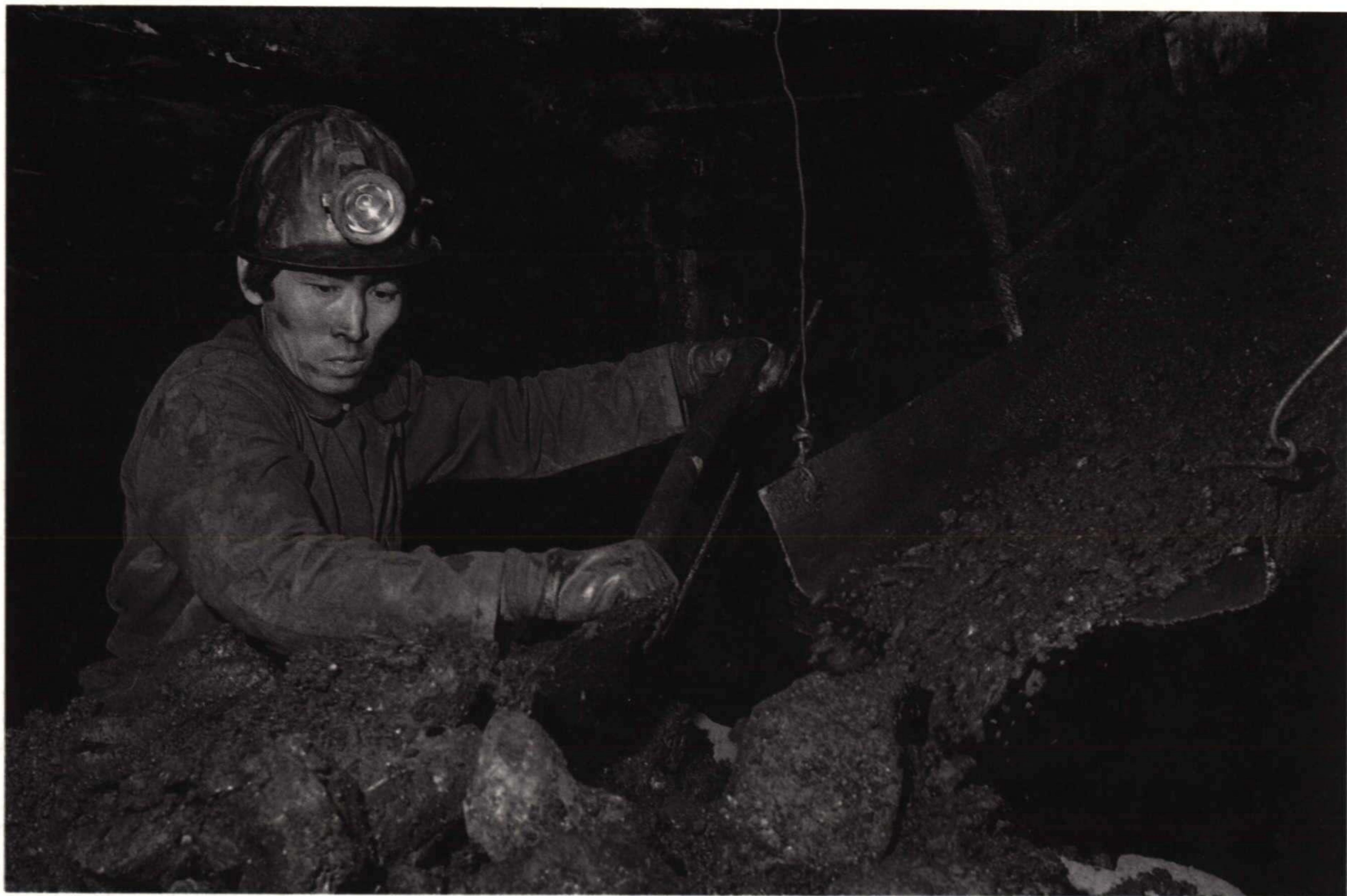
운탄(1)- 50년대의 막장 운탄모습, 질통에 탄을 담아 등짐으로 져 날랐다.



운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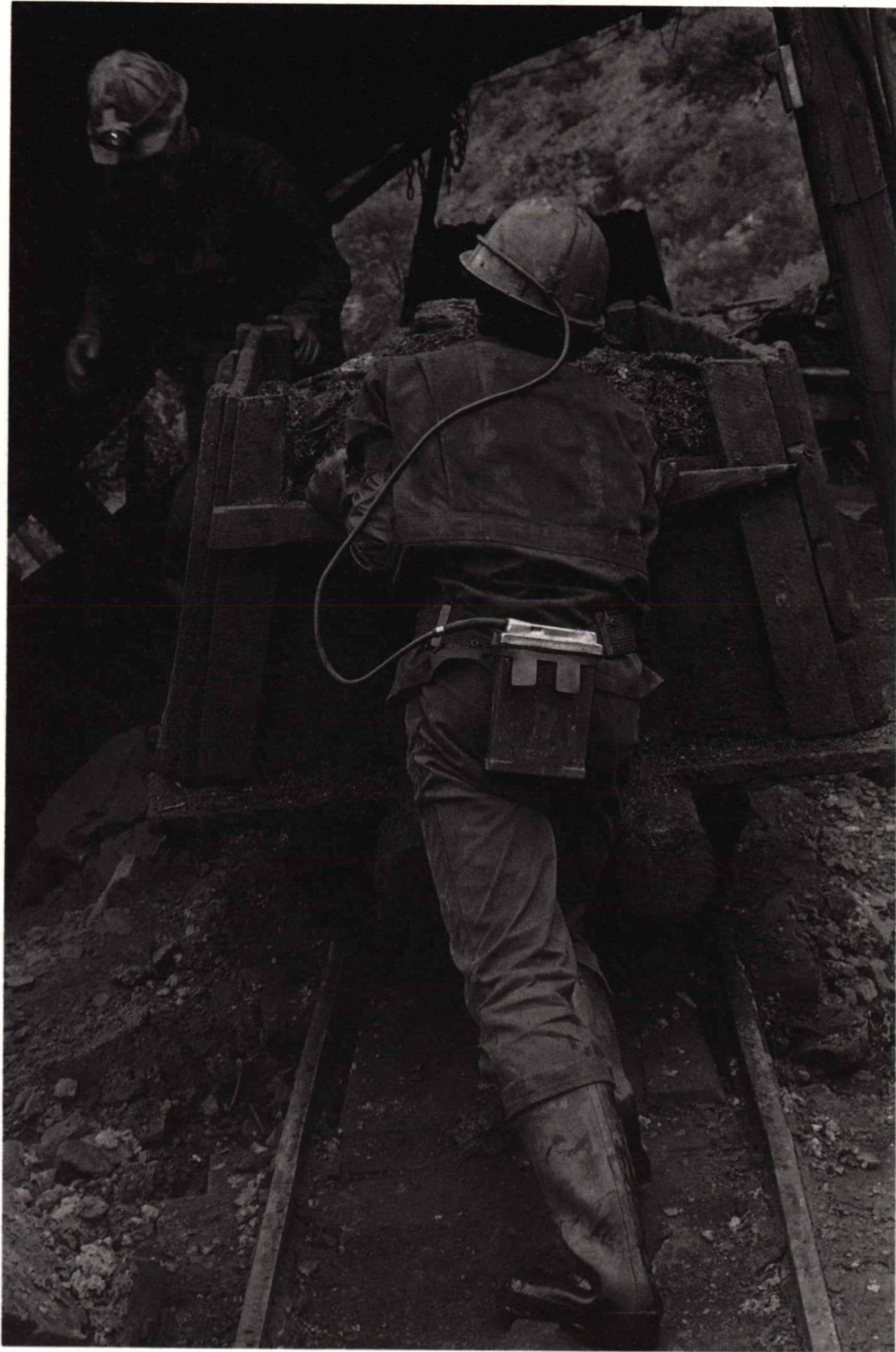
조구통(슈트) 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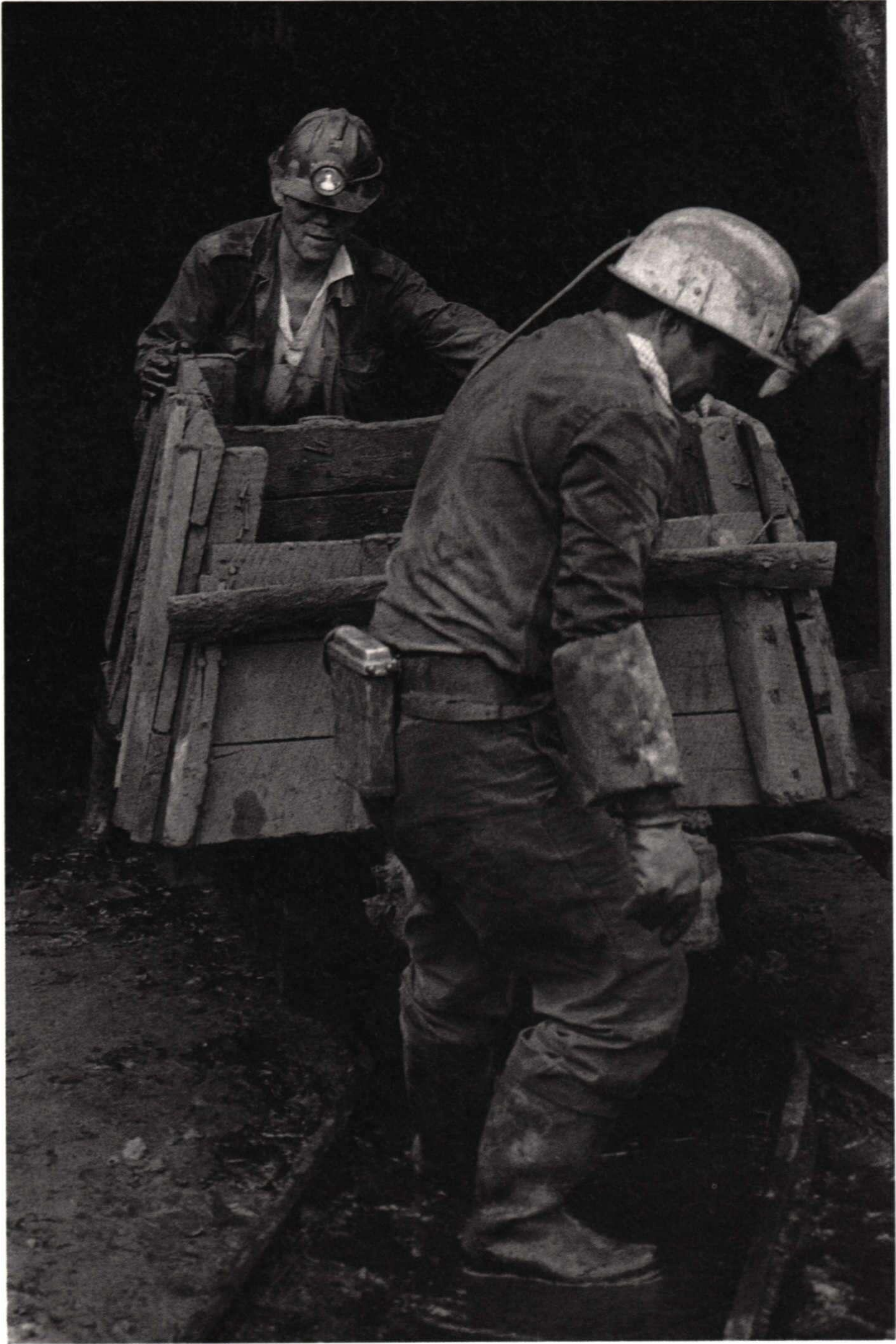
운탄(3)



운탄(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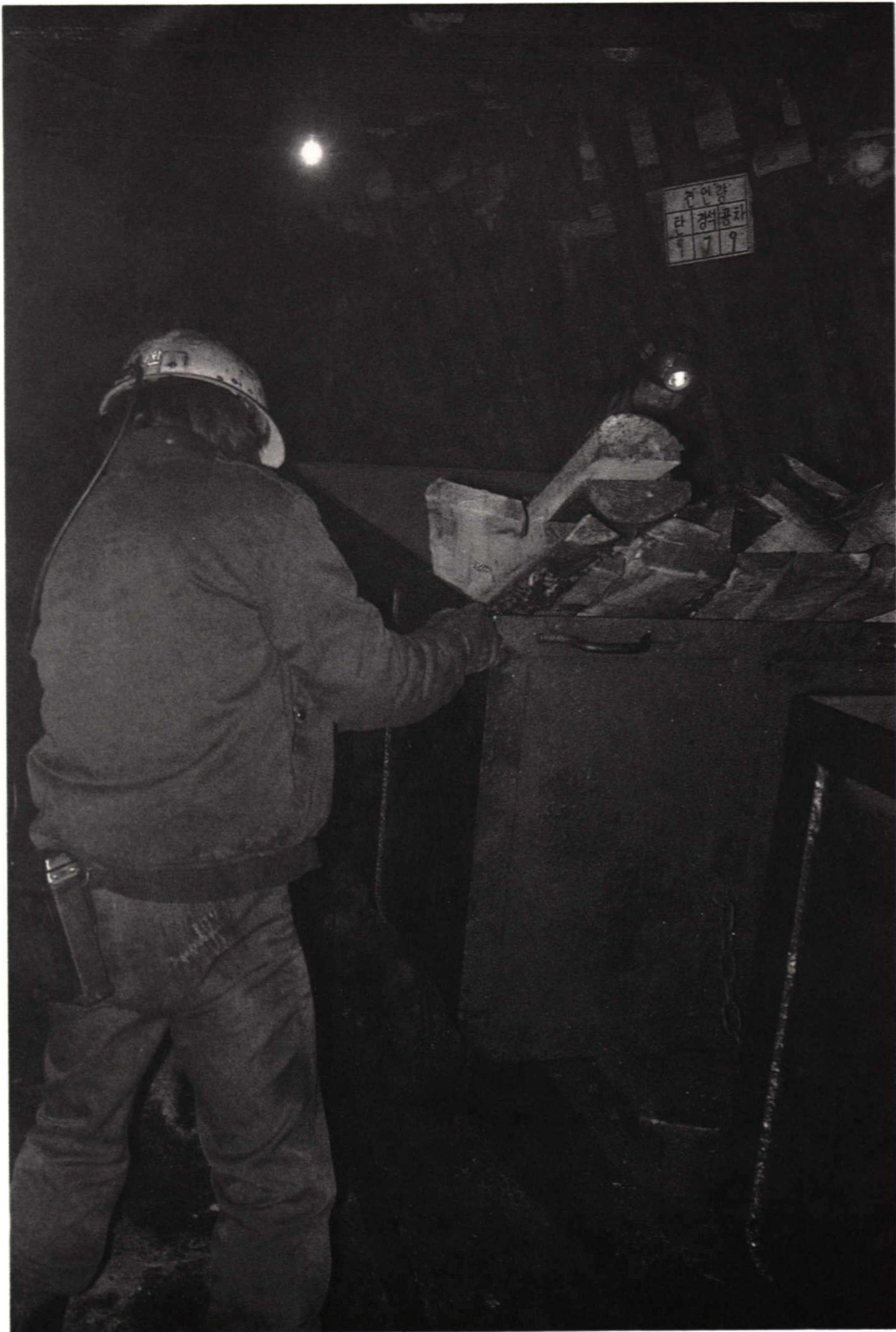
운탄(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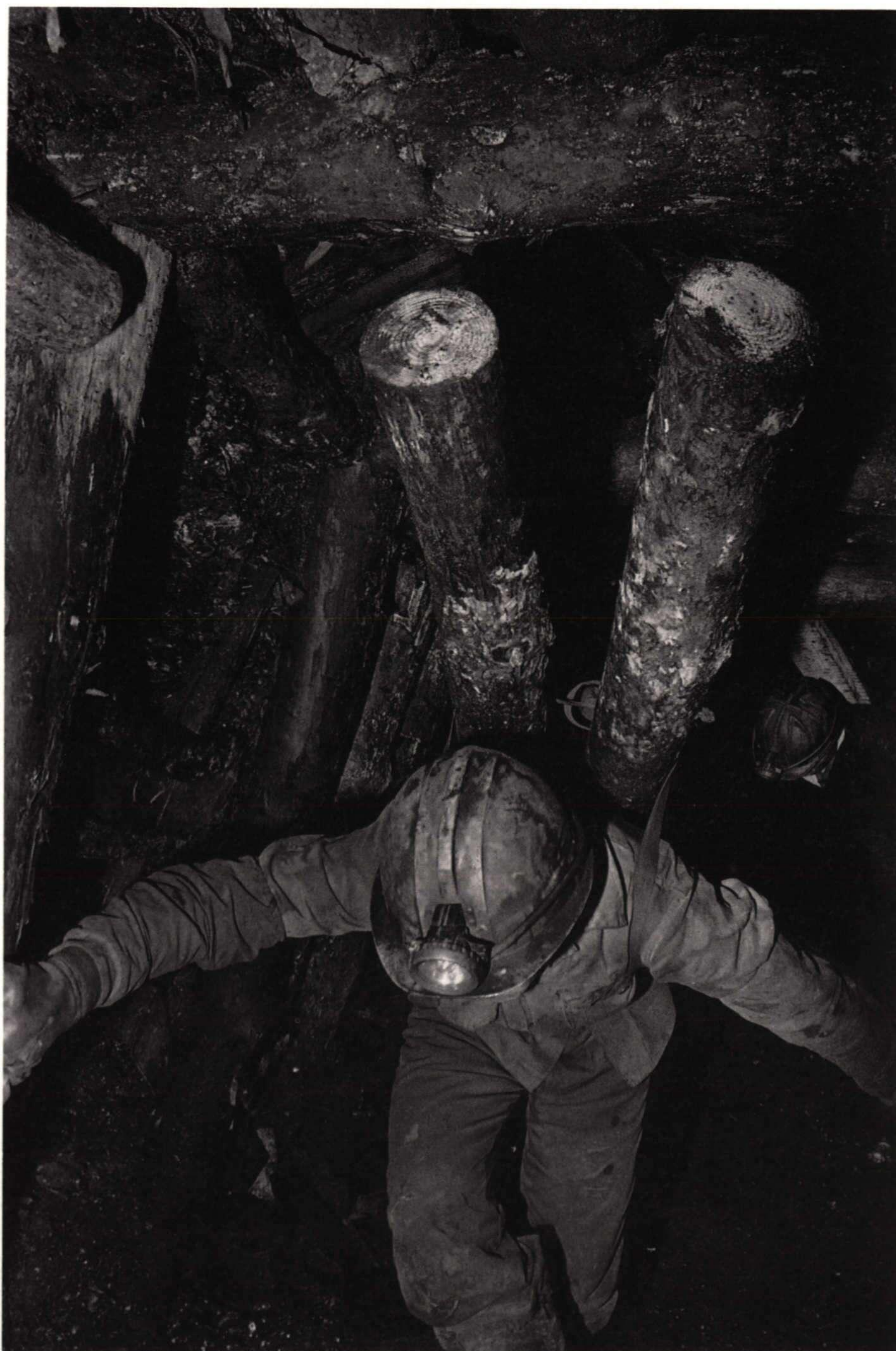
운탄(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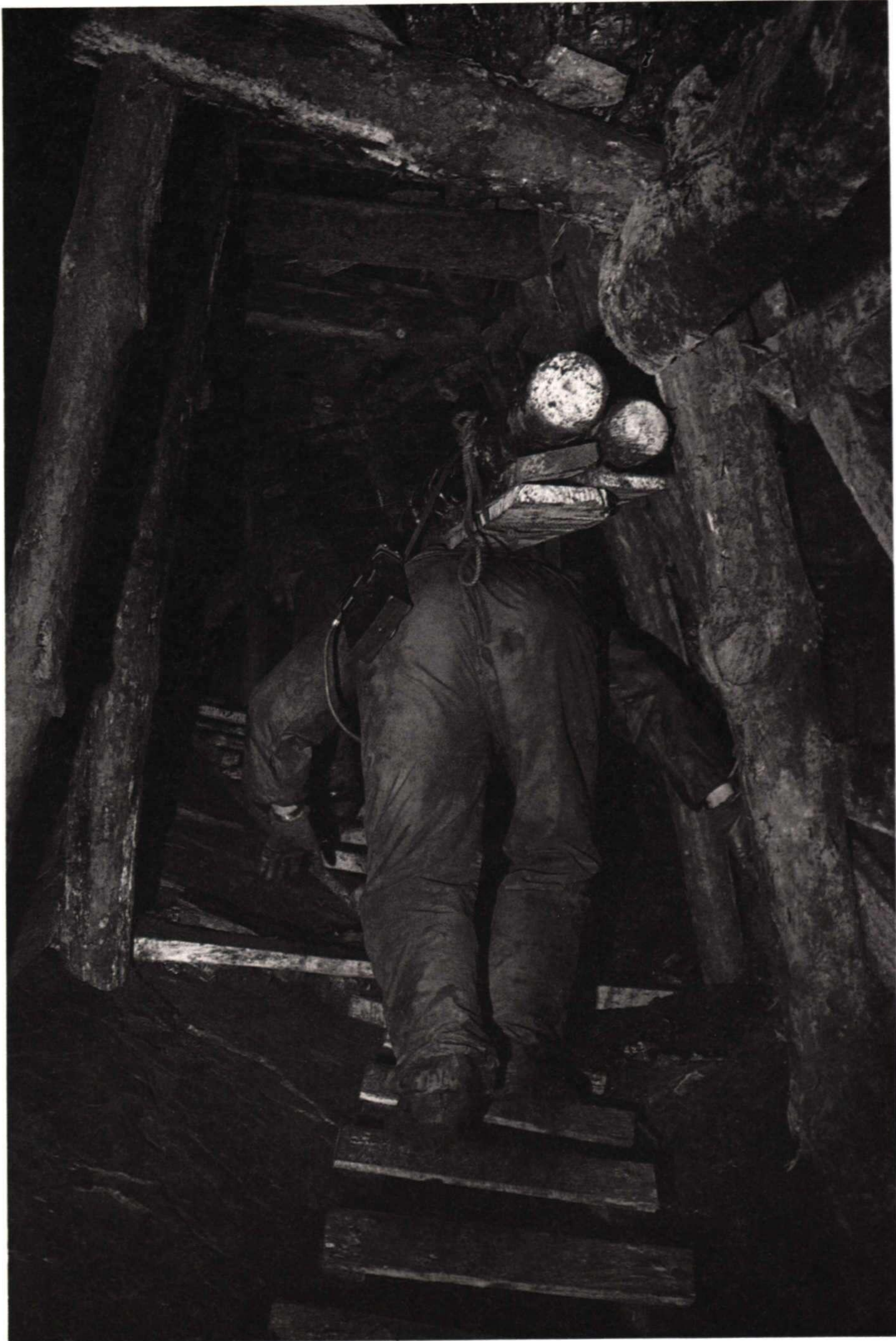
운탄(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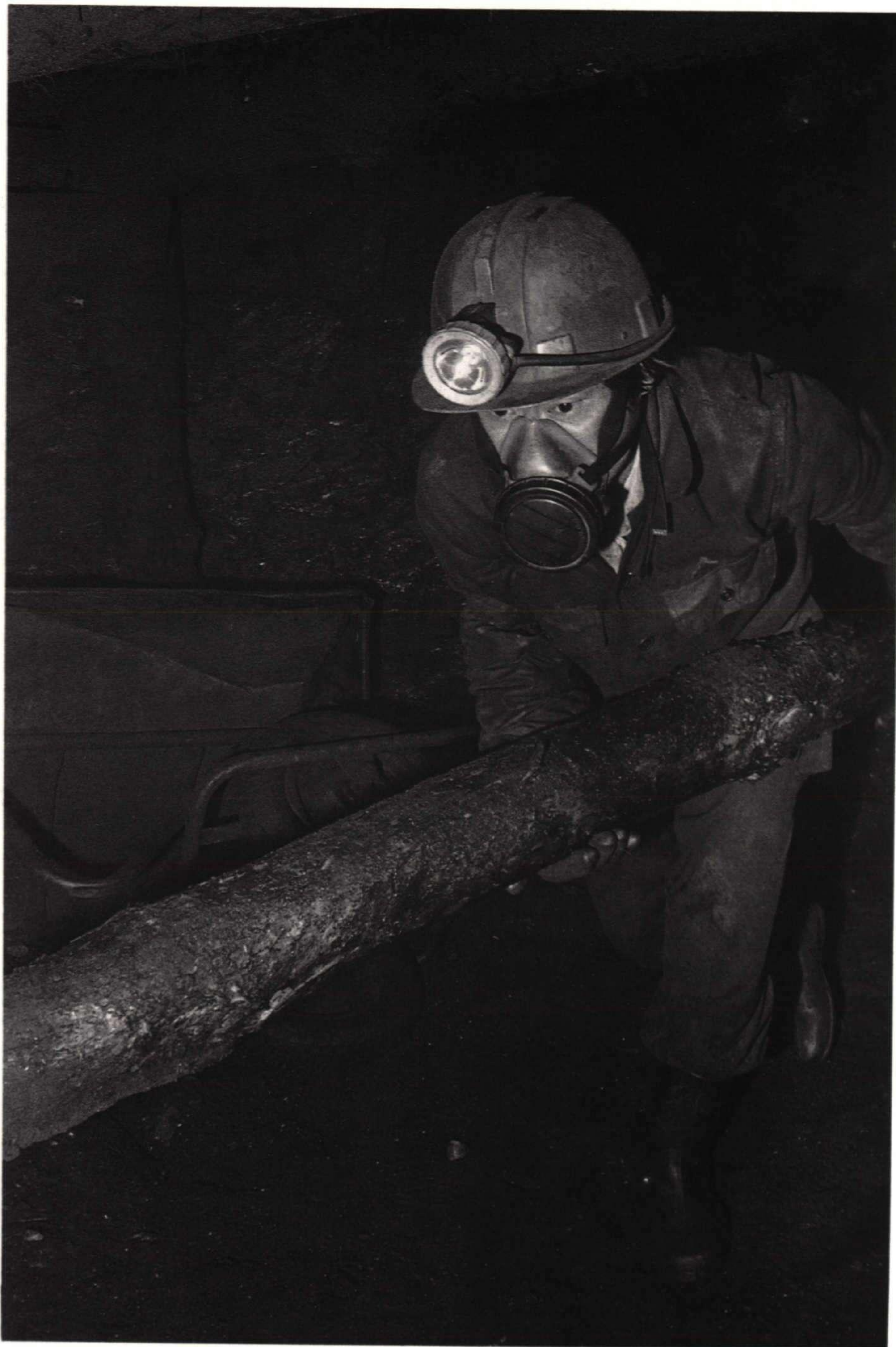
운탄(8)



동발나르기(1)-대개 탄광일을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첫 노동으로 동 발나르기를 시킨다. 이 일을 하면서 울지않는 사람이 없다. 7~80 도의 경사꺽도, 미끄럽고 어둡고 적막한 구간을 오르며 눈물, 땀물 범벅이 된 얼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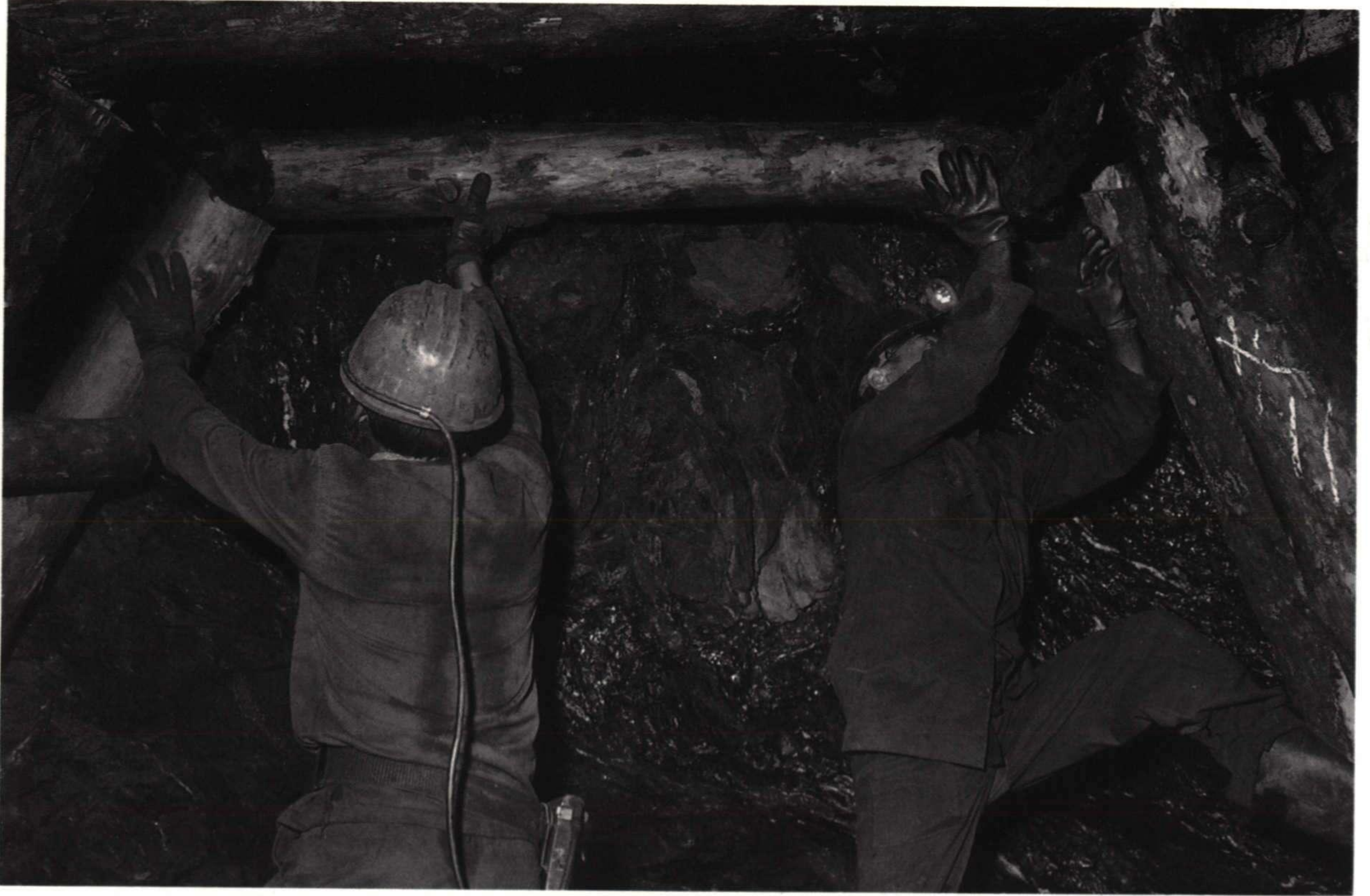
동발나르기(2)- 한번 발을 헛디디면 밑으로 굴러떨어져 크게 다친다.
누렇게 뜬 마누라의 얼굴. 배고프다 보채는 어린 자식들의 울음-막장사람
들은 여기서 이를 악문다.



동발나르기(3)



동발제단



동발(자루) 세우기-막장탄을 실어낸후 동발을 세운다. 그냥두면 막장이 무너지고 전진 채탄을 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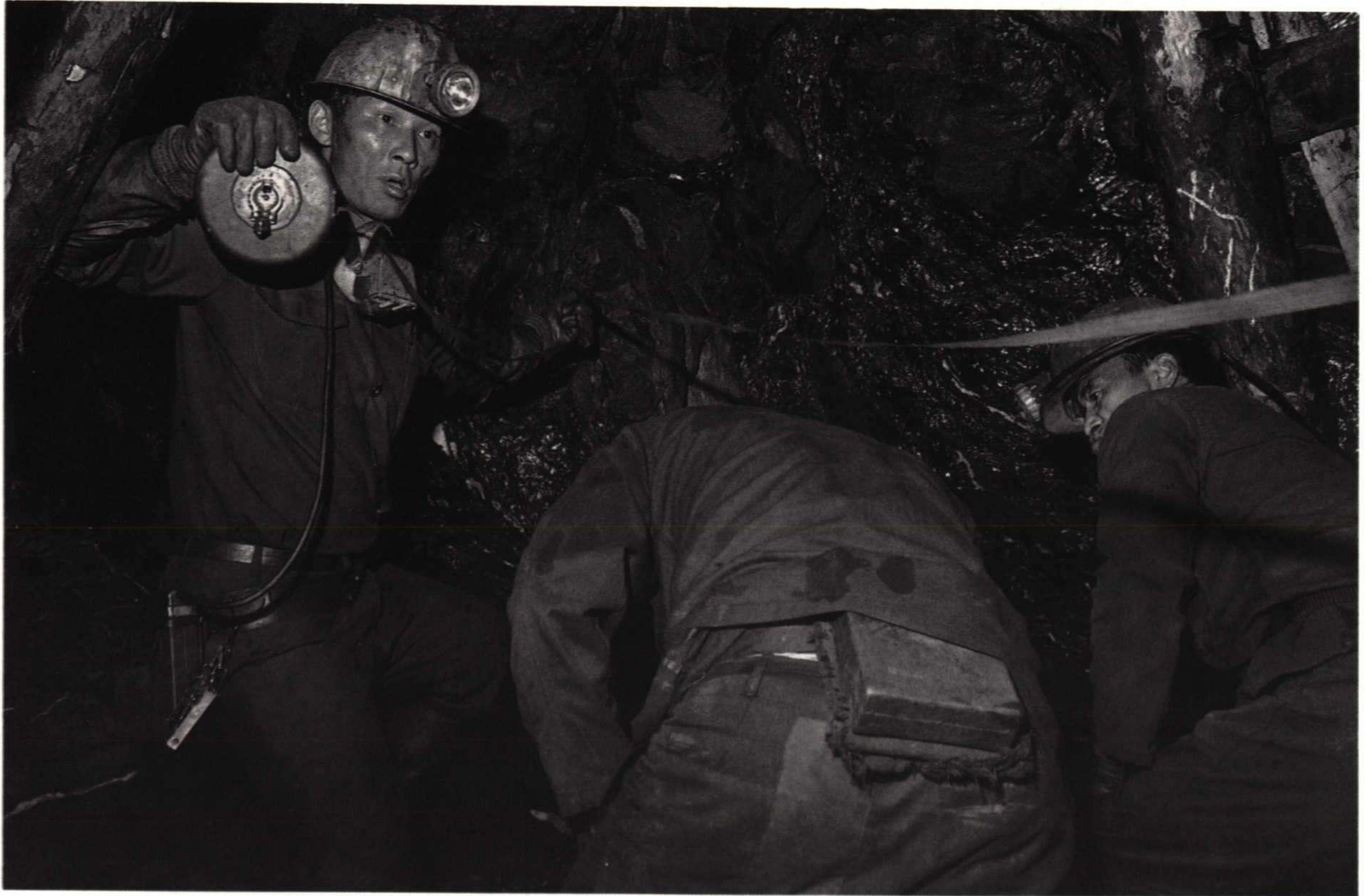
췘기 깎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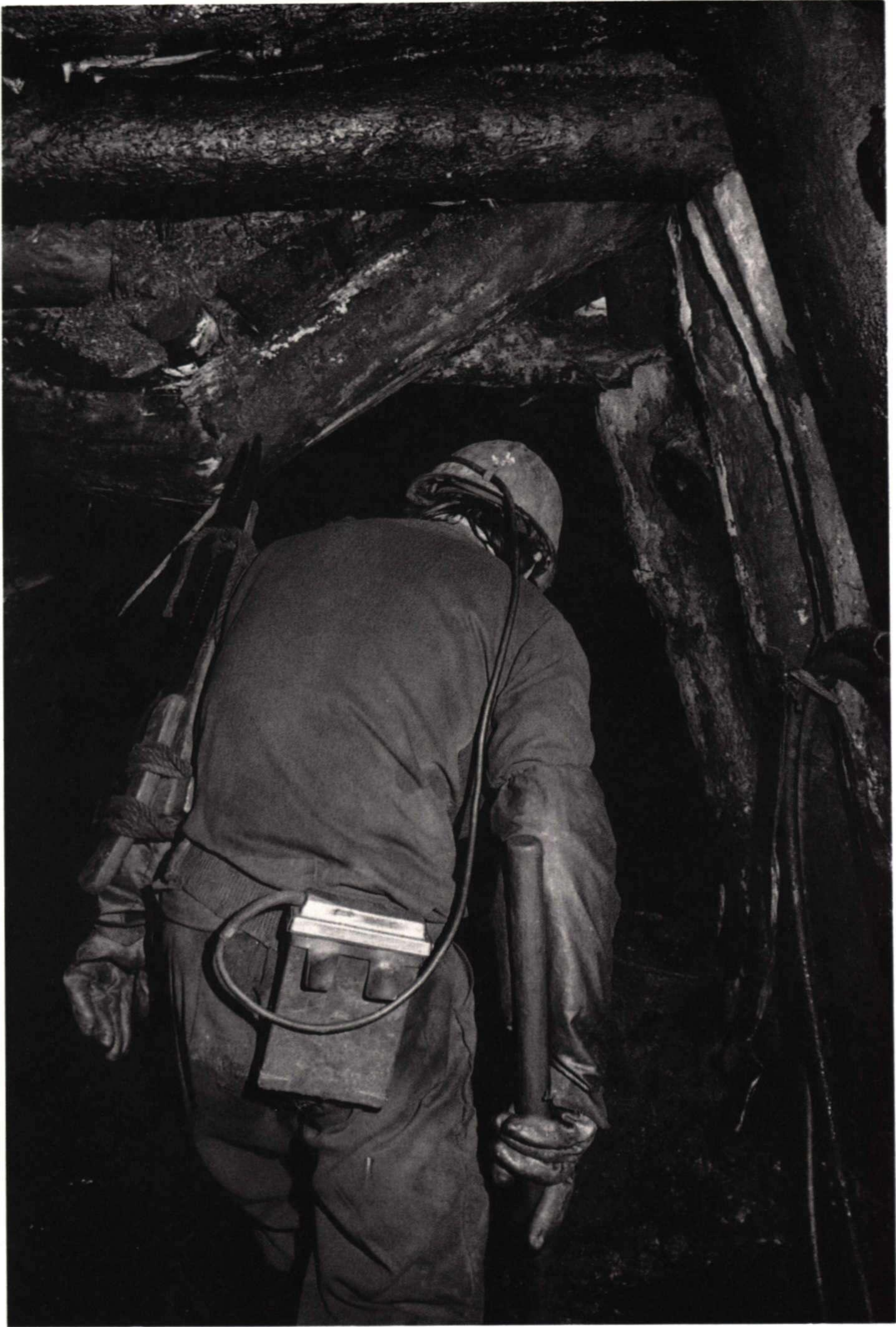
휴식(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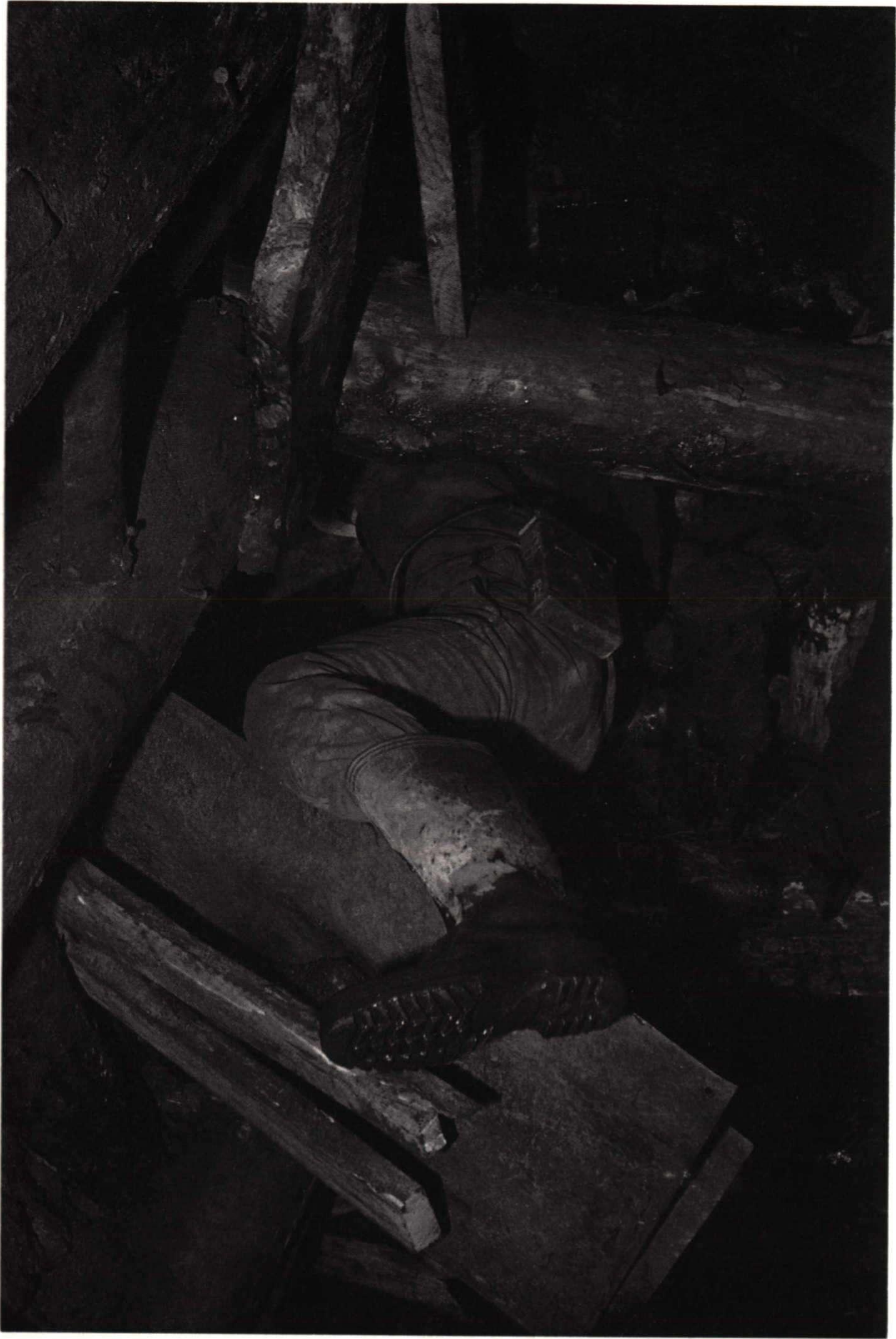
휴식(2)



검척-굴진작업(탄맥을 찾아 땅속을 뚫는 작업)은 검척으로 작업실적을
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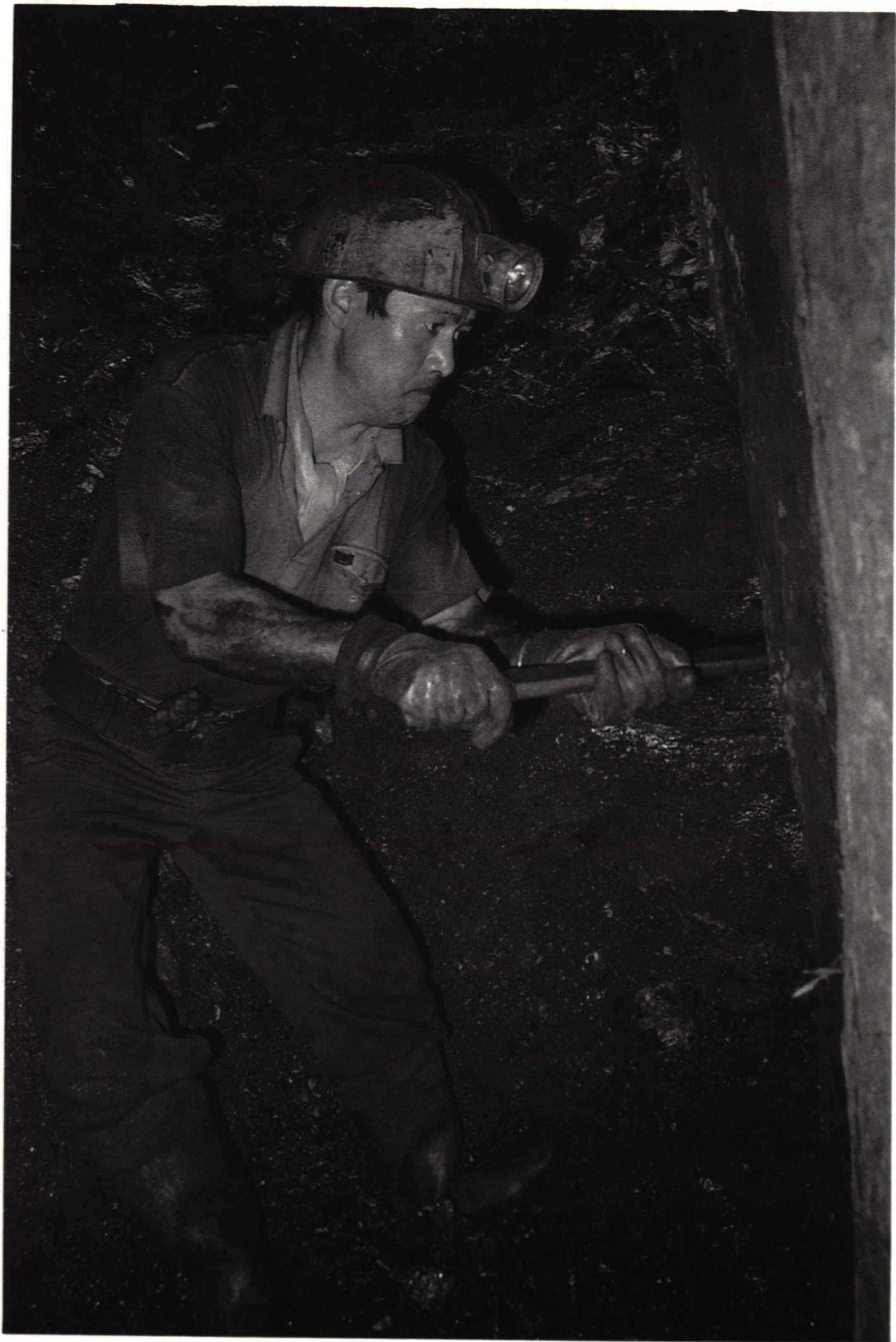
보갱(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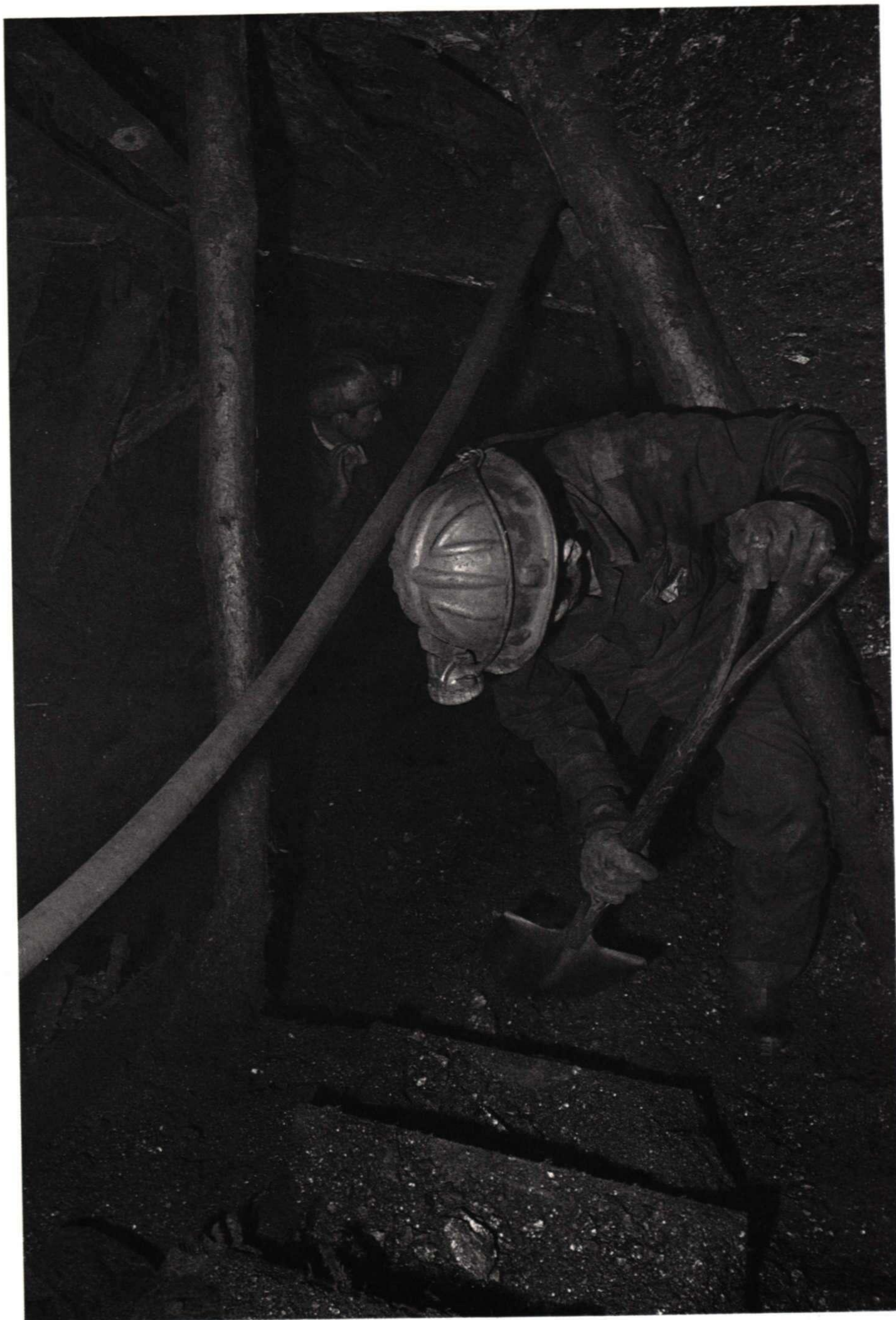
보갱(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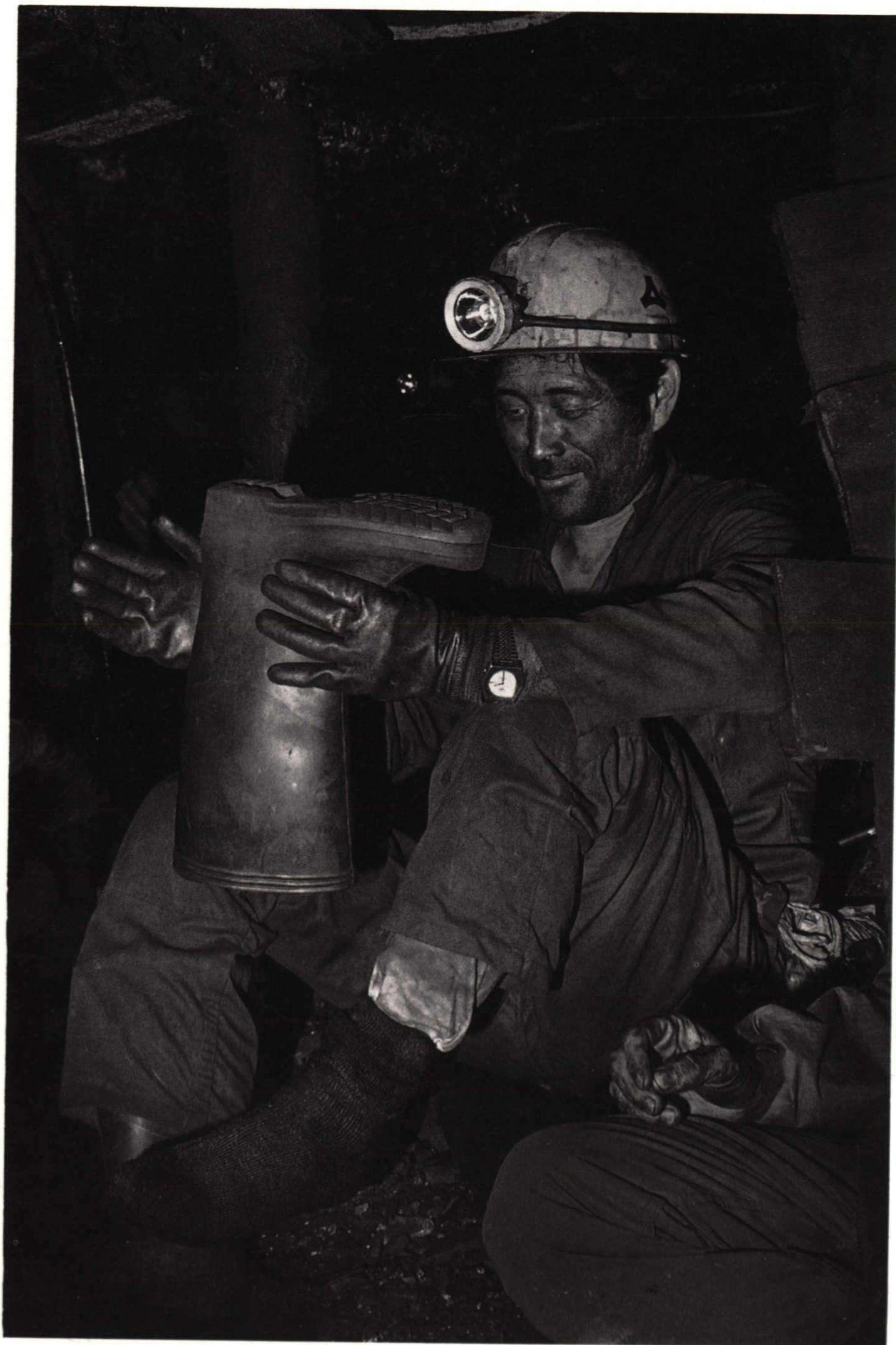
보갱(3)



보갱(4)



승강도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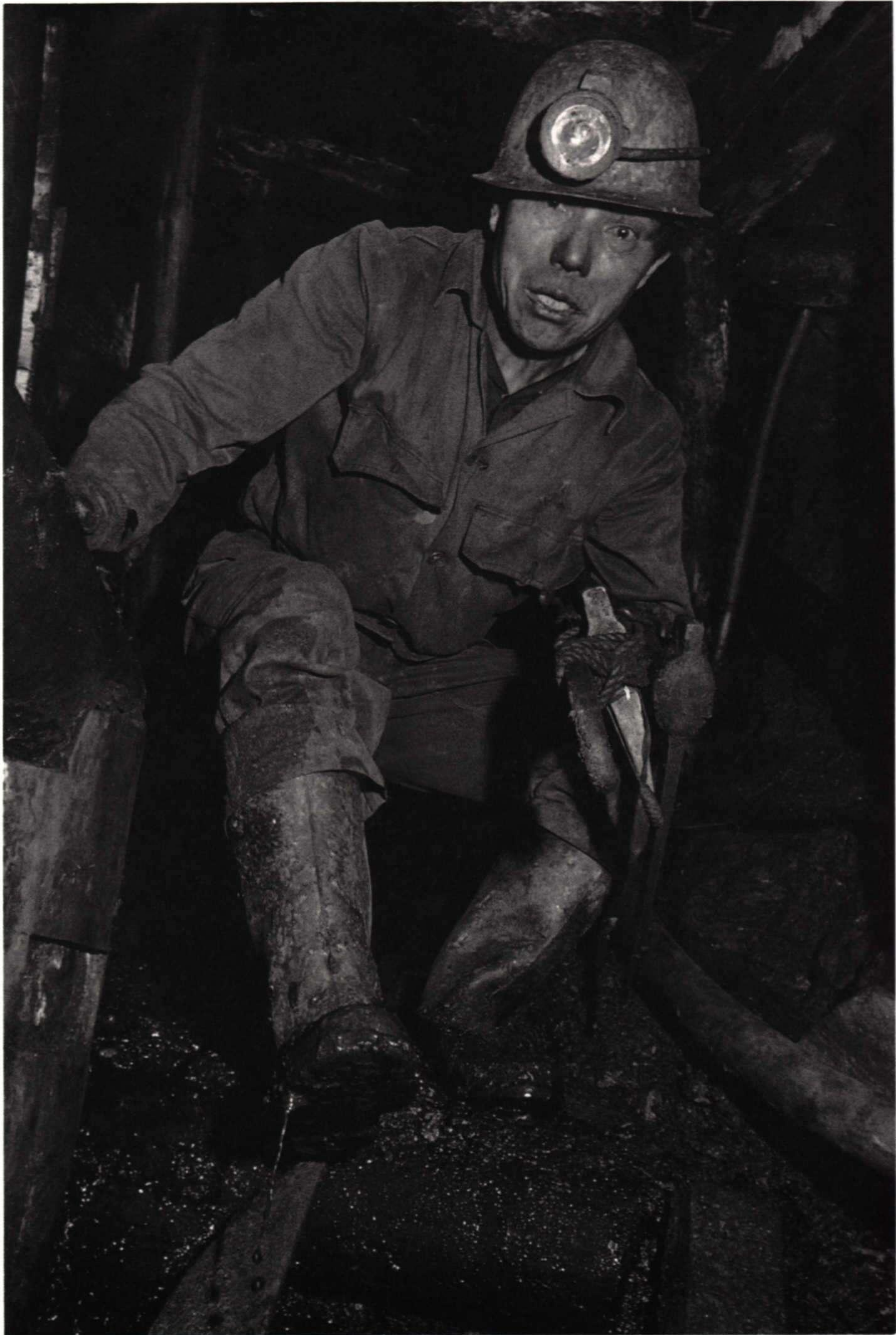
퇴갱준비(1)-지열과 습도, 그리고 노동이 어우러져 장화 가득 고인 땀물.
막장 작업을 끝내고 교대조가 올때를 기다리는 막장사람들의 얼굴에는 안
도와 노동의 포만감이 어우러진 미소가 어린다.



퇴깁준비(2)-사끼야마(선산부)의 톱과 도끼정리 출퇴근길 어깨에 매면 헬
멧, 검은 작업복과 함께 무장군인 같은 모습이다.



퇴갱(1)- 하루종일 앉아서만 일했던 막장, 허리를 구부리고 운반갱도까지
나와야 한다.



퇴갱(2)- 겨우 막장을 빠져나오면 운반갱도까지 내려가는 사다리가 미끄럽다.



퇴갱(3)-사끼야마(선산부)의 전형적인 모습 몸도 마음도 모두 젖어있다.

표정·표정·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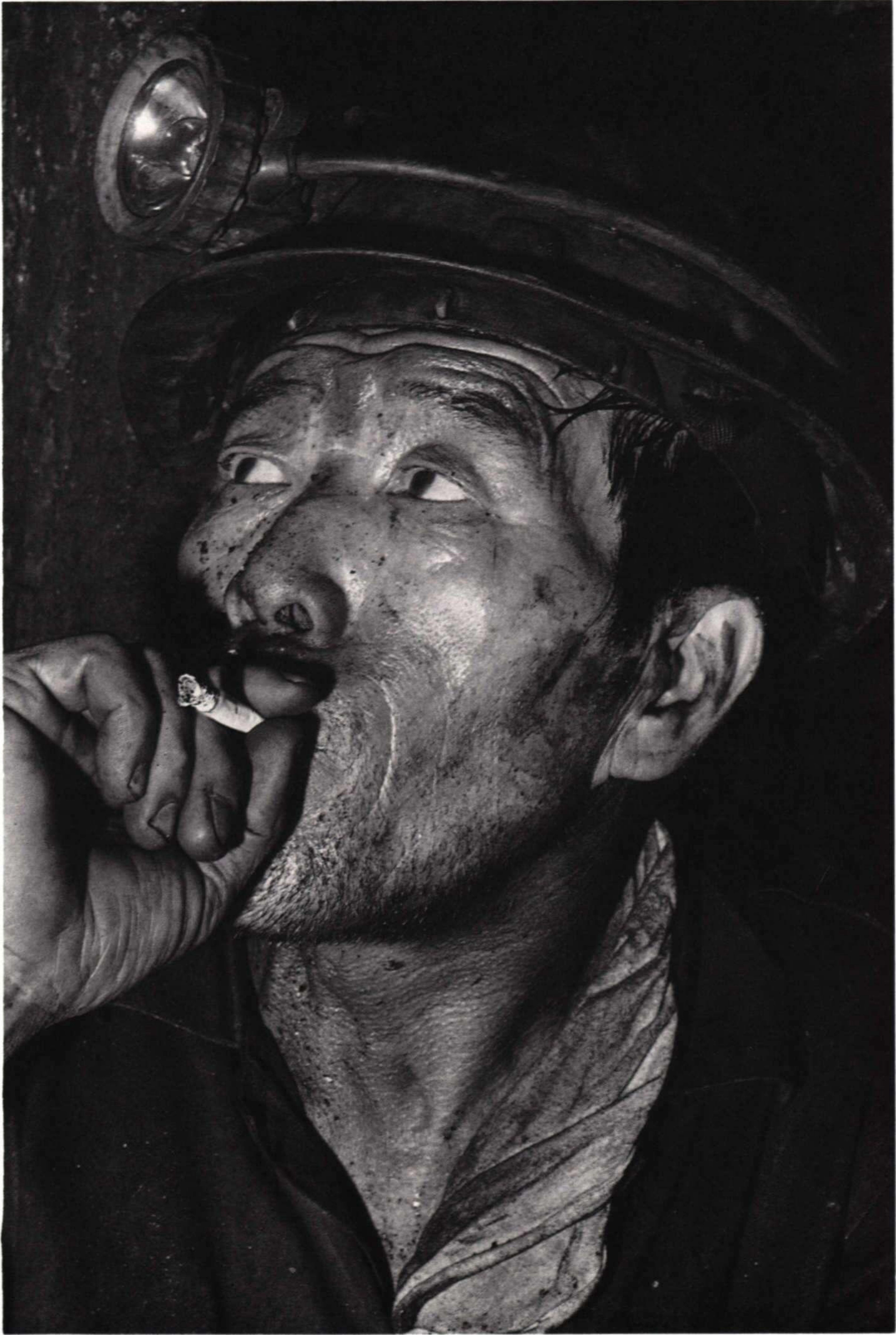
순박한 얼굴, 그 얼굴위로 땀이 번지고
탄가루가 묻는다.
그래도 희노애락을 아는 표정있는 얼굴이
흑인처럼, 가면처럼 표정을 숨긴다.
사바세계를 초월한 막장사람들의 얼굴.
구름속에 달뜨듯 검은 얼굴이 웃는다.
불안한 눈으로 동발을 살핀다.
숙련된 귀로 듣는다.
짐 오는 소리, 이슬 맺히는 소리를,
짐오는 소리는 지압으로 갱도가
무너질듯한 소리다.
이슬 맺히는 소리는 지하수가
갱도로 스미는 소리다.
지하막장은 어설프다.
거기서도 사람들은 숨쉬고 웃고
불안해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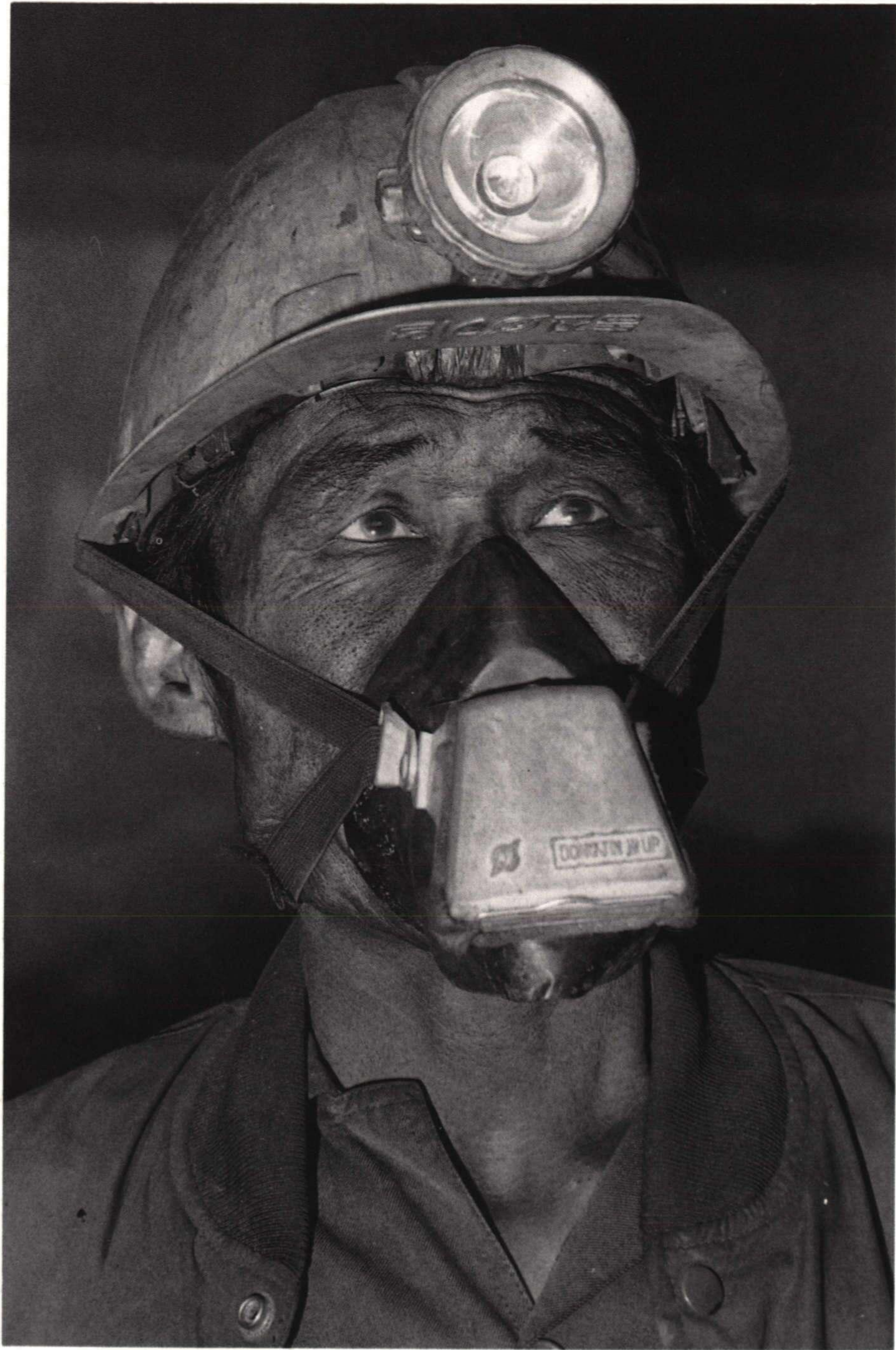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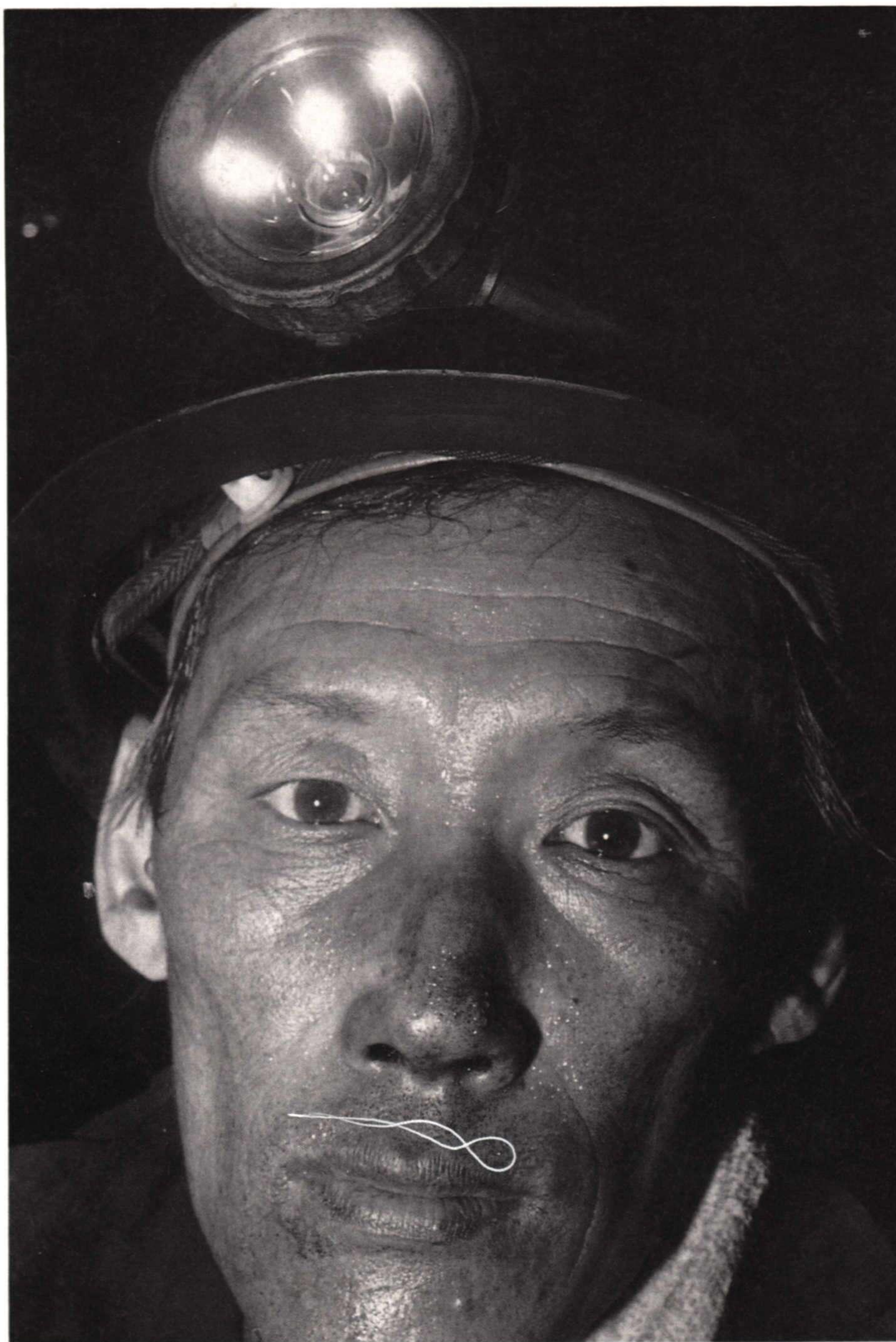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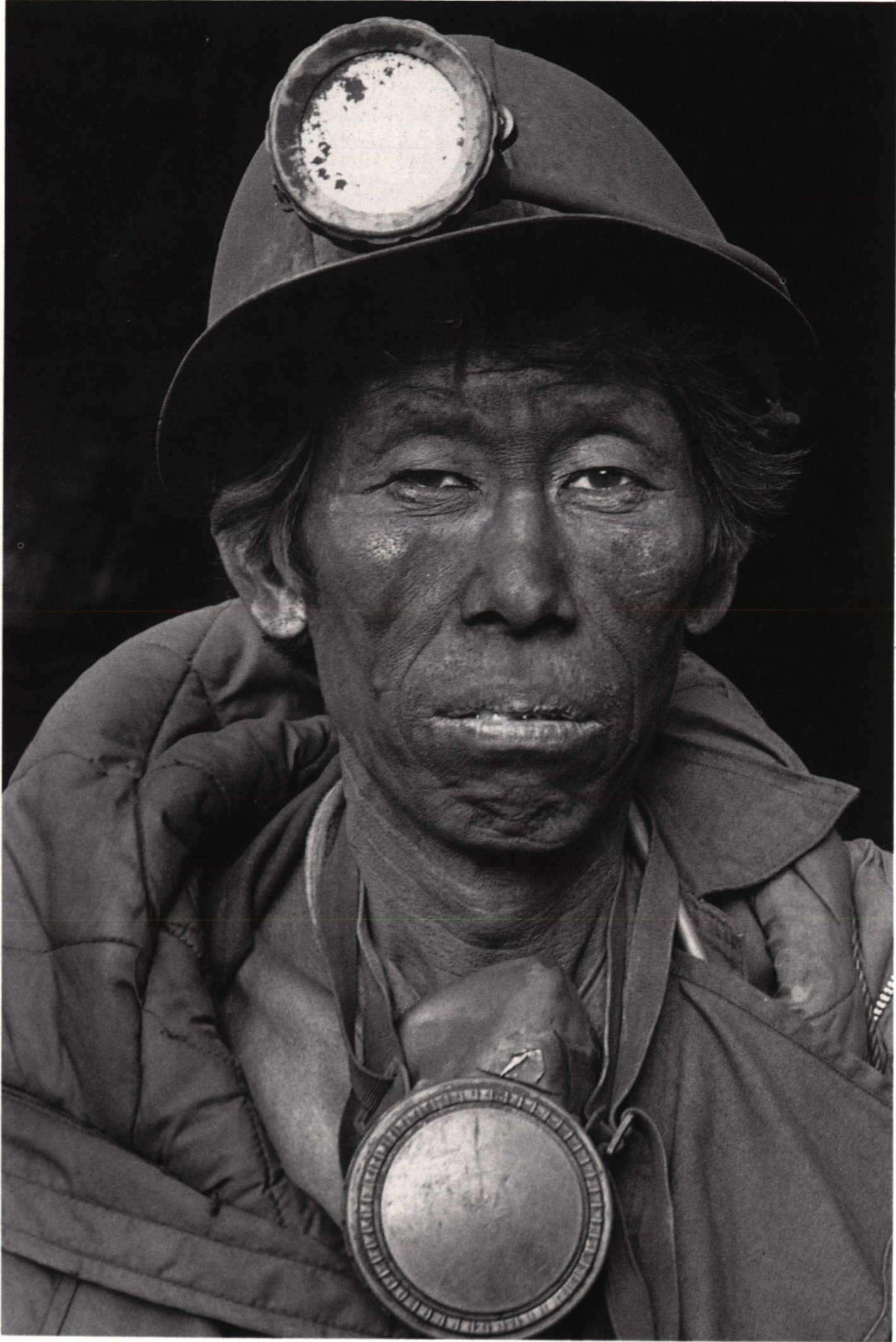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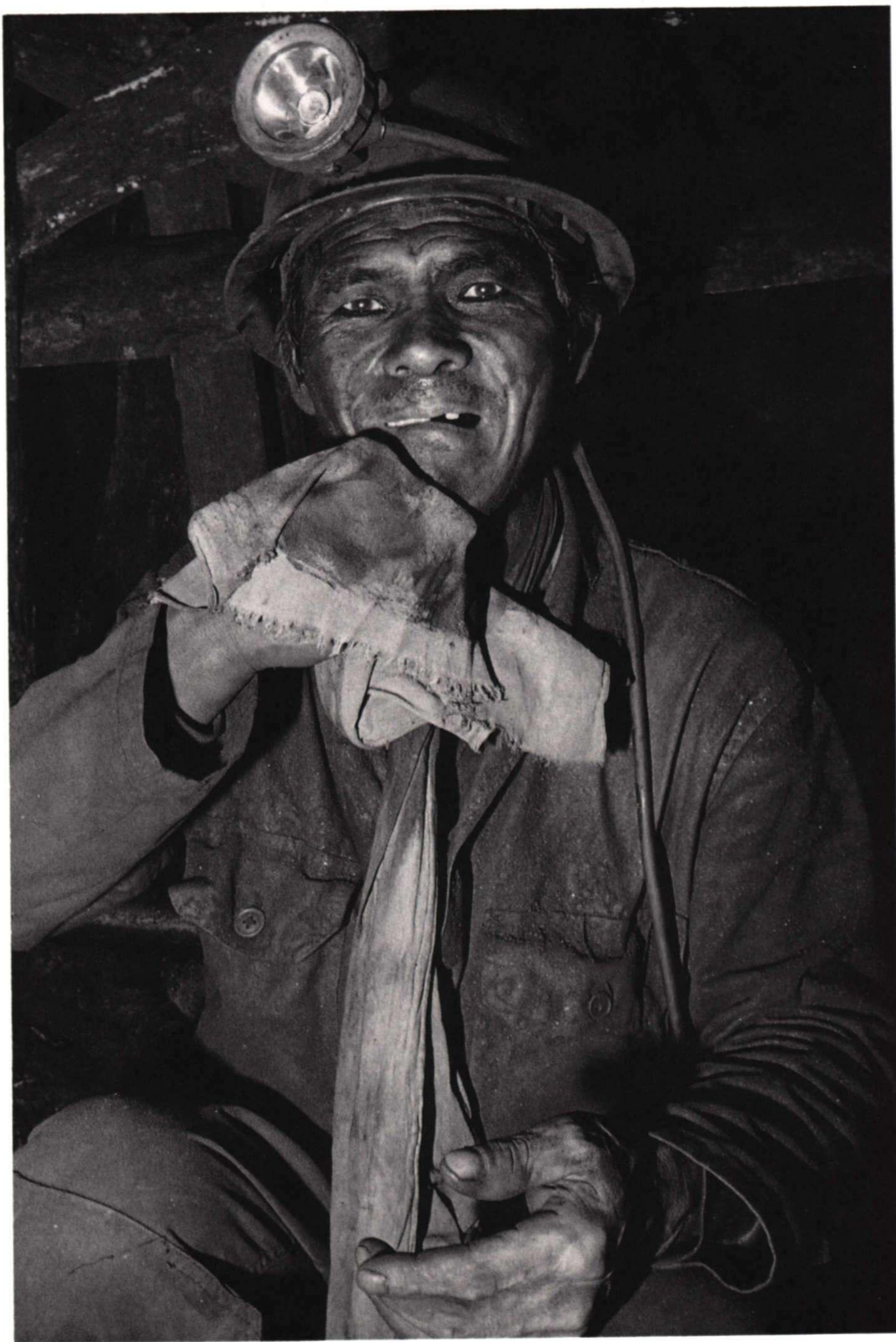














무언의 고별사/김영훈
기록한다는 의미/류제원

무언의 고별사

김 영 훈

태백탄전은 석탄생산에 의지해 영욕의 세월을 살아왔다.

석탄으로 일어나 석탄으로 내려앉은 아이러니를 사람들은 운명이라고도 한다.

수입연료에 밀려 힘겨운 육신으로 산자락을 부여잡고 가쁜 숨을 쉬고 있는 것이다. 석탄산업은 검은 황금을 캐는 호황기를 언제 누렸느냐는 듯 생기를 잃고 있으며 칠성판을 지고 두더쥐처럼 땅을 파 먹던 막장사람들은 폐광에 밀려 구리빛 육체를 햇빛 쏟아지는 벌판으로 옮겼다.

땀 범벅으로 막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서름 많고 눈물 고였던 막장을 땅속 깊이 묻어 버렸다.

막장 사람들의 막장생활은 위험하고 고단했지만 인정을 꽃물처럼 마시며 살아왔고 생사고락을 형제처럼 나무며 먼 미래를 꿈꾸었다.

이제 사라져 버린 그 「막장 사람들」의 진솔한 얘기들이 한 권의 사진집으로 만들어졌다. 우리는 이 사진집을 보면서 그들의 흔적을 추적해 보고 한때는 「산업역군」들이었던 막장 사람들의 「무언(無言)의 고별사」에 귀를 기울여 보자

막장 사람들은 지하 깊은 곳에 갈무리진 석탄을 캐는 지하 노동자들이다.

어느때였는지, 고향을 통해 성공한 한 국회

의원 후보가 막장 사람들의 귀중한 한 표를 얻기 위해 막장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 사람은 몇시간 후 졸도를 한 채 갱밖으로 나왔다.

유세날. 그 사람은 이렇게 연설했다.

「째지게 가난했지만 배움에 굶주린 나는 고학으로 대학을 나왔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해보지 않은 노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채탄 막장에서 생각했습니다. 석탄 대신 다른 연료가 확보되고 막장사람들에게 다른 직장만 보장될 수 있다면 탄광은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막장 노동은 보통 노동자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중노동이다.

30도가 넘는 지열(地熱), 90%를 오르내리는 습도, 자욱한 탄 먼지. 그 속에서 탄을 캐고 동발을 나르는 막장 사람들. 장화 가득 고이는 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물통, 금방 무너질 것 같은 갱도, 냄새도 빛도 없는 가스, 캄캄한 땅속.

큰 탄광은 기계화 되고 안정장치가 탁월해 건달만 하고 현대식 아파트에 후생복지 시설이 구비돼 살만하지만 영세탄광들(지금은 폐광돼 흔적이 남아 있을 뿐)은 50년대나 80년대나 별로 다름없어 시설에서 탄을 캐다.

막장 사람들의 내력은 기구했다.

일제(日帝)는 석탄수탈을 위해 수많은 우리 청년들을 징발해 갱속으로 쏘서 넣었다. 콩깨묵을 먹이며 혹사 시키면서도 노임은 1년에 한 번쯤 주었다.

그리고 술집을 차려 고향이 그리고 부모형제가 보고싶은 막장 사람들에게 외상술을 먹게 했고 노름판을 벌여 외상돈을 빚지게 했다. 악랄한 일제의 수탈에 기진맥진한 막장 사람들이 술에 끌고 노름에 기진해 결근을 하면 독찰대들이 몽둥이로 뺨박해 막장으로 끌고 갔다.

발파, 봉락, 출수(出水), 낙반사고로 숨지거나 불구가 되어도 보상 한 톨이 없었고 전염병이

창궐하면 골짜기에 격리, 방치해 숨지게 했다.

외롭고 의지할 곳 없는 막장 사람들은 형제계를 맺어 서로를 도왔으며 속절없이 형제들이 황소울음으로 고별하는 참으로 애타는 모습들이었다.

50년대말 민영탄광 개발이 시작되면서 보릿고개, 그 처절한 굶주림을 피해 막장일만 하면 쌀 배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을 의지해 전국의 농민들이 태백탄전으로 들어와 막장 노동을 자원했다.

쌀 배급에 매달린 막장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덕배들이 또 빌붙기 시작했다.

임금은 1년에 두번 추석과 설날 전에 주고 매월 쌀 전표를 광업소가 발급했다. 3등미를 1등미 값으로 전표를 끊어 노임을 착취했고 쌀 전표와 돈을 바꿔주는 쌀 장사들은 전표금액의 상당액을 할인해 착복했다.

쌀 장사들은 이것도 모자라 뒷박장난을 쳐 또 얼마씩을 떼 먹었다. 식구가 많은 막장 사람들은 하루 8시간 지하노동에도 기진맥진 했지만 한 뒷박의 쌀이라도 더 벌기위해 16시간씩 작업을 해야 했다.

80년대에 들어와서야 그런대로 보통 노동자들처럼 안전조업이니 후생복지니 하는 것들이 가시화 되기 시작했다.

물론 굴지의 탄광들은 70년대부터 달라지긴 했다.

그러나 졸닥구덩이라고 불리는 영세탄광은 폐광하기 전까지 위험한 막장에서 일해야 했고 임금도 제때 받지 못했다.

이 사진집은 태백탄전의 여러곳 여러개의 졸닥구덩이에서 촬영한 모습이다. 마치 원시와 현대가 공존하는 불과 2년전까지의 졸닥구덩이와 굴지의 탄광모습을 우리는 회한의 눈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막장 사람들의 「무언의 고별사」를 경건한 모습으로 귀 기울여 본다.

기록한다는 의미

류 제 원

1985년 봄, 나는 이곳 태백에 어쩌다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그때만 해도 태백은 홍청거리는 도시 마냥 어디를 가도 옛날 같지는 않았다지만 막말로 경기가 좋았다.

좋은 친구 만나면 그냥 한잔하자고 잡아끌던 시절.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서서히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탄광의 뒤를 바라보면서 나는 무엇인가 기록해야겠다는 생각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그래, 지금의 모습부터가 아닌 좀 더 지난 모습을 찾아보자.

그래서 찾기 시작한 영세탄광들 나는 그들의 애환을 들으며 내 나름대로 작업을 꿈꾸기 시작했다.

처음 찾아간 어느 탄광에서 보기 좋게 사진도 못찍은 채 밀려났다.

또 찾았다.

좀 더 광부가 적은 영세탄광. 그 탄광은 그래도 사장이? 사람이라 생각되었다.

나보고 대번 하는 말“여보, 찍을 자신 있으면 찍어 보슈” 무슨 말인지 이해는 잘 안되었지만 그저 고맙기만 했다.

태백에서 터를 잡은 어느 사진가에게 물으니 “갱내는 30도가 넘는 지열, 90%의 습도, 가만히 있어도 흘러 내리는 땀 또 후래쉬 광에 잘못하면 개스가 폭발한 위험이 있으므로 갱내사진은 어려울 것이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광부복장으로 작은 로레이 35카메라에 작은 후래쉬로 막장을 찾았다.

도저히 찍을 수가 없었다.

다시 돌아와 사장께 부탁했다. 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루동안만 안내자 한사람만 동행 시켜주기를, 그랬더니 사고위험이 어디든 도사리고 있으므로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럼 사고위험이 적은 곳만이라도 안내를 부탁했더니 허락했다. 무척이나 고마웠다.

사진 한장 찍어보지 못하고 몇 개월을 지냈으니 말이다.

바깥 풍경을 찍는다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갱내 막장의 일이 남들로서는 하기 어려운 작업이고 또 바깥 풍경으로 이들의 현실을 알리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시작한 막장 사람들과의 만남.

로레이 35로서는 도저히 기록의 어려움이 있기에 Nikon FM, 28mm 광각, 50mm 표준, 43 - 86Zoom Lens, Metz, 45CT - 1 후래쉬를 모두 버릴 각오로 덤벼들었다. 필름은 TRI-X로 시작하였다. ISO 100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작업이었다.

갱내는 캡램프가 아니면 거리계도 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막장에 도착했다. 카메라에 서서히 습기가 차기 시작했다. 외부에서 집어넣는 공기호스에 카메라를 갖다 대 본다. 그러면서 찍기 시작했다. 한 두컷 찍고 공기호스를 찾고 꽤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이들과의 만남도 쉽지는 않았다. 특히 젊은 사람은 사진 찍기를 거부함은 물론 작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은근 슬쩍 탄압으로 먼지를 일으키며 나를 괴롭히기도 했다. 처음부터 찍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꼈다.

하루는 카메라를 가지지 않은 채 도시락을 싸들고 출근을 했다. 광차를 타고 갑방팀들과 한 조가 되어 들어가서는 삼질을 해 보았다.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다. 오히려 방해가 되어 도시락도 먹지 못한 채 밖으로 밀려 나올 수밖에 없었다. 간이 목욕장에서 목욕을 하고 선탄장에서 선탄부들과 점심을 먹으며 대화를 했다. 2시경 지나자 갑방근무자들이 하나 둘 퇴갱을 시작했다. 나는 그들을 찾았다. 그들과 만났다. 한참동안이나 나를 보고 웃어제끼는 그들에게 어느 중노동보다도 고된 갱내의 현실을 누군가 기록해 두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다. “그래, 맞다.”라는 대답도 얻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찬성일 뿐 어려움도 많았다.

그들의 갱내 작업사진이란 그들의 작업을 방해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작업을 방해한다는 것은 곧 그들의 임금을 깎는 일이었다. 그때만해도 대부분의 영세탄광에서는 도급제라는 것으로 광부들의 작업을 강요하였기 때문이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막장, 뿌연 먼지속에 후레쉬가 터지면 너무나 부담스러운 것만은 사실이었다.

그래도 그들은 나와 낮이 익었는지 제법 포즈까지 취해주며 나를 이해하고 자신을 죽여가고 있는지도 생각지 않았다. 어느 노광부를 만났다. 처음부터 무표정으로 나를 대했던 그에게 “내 작업을 이해하시느냐”고 했더니 나도 S대학 사진과에 자식이 있다고 하며 그놈이 글씨 전쟁사진을 찍는 것이 소원이라는 대답도 했다. 그러면서 나를 오히려 이해해주는 것이 아닌가. 그날 나는 그와 못먹는 막걸리 한잔에 돼지비개 안주에 시간가는 줄 모르고 눈물이야기를 했다. 지난날 자기가 처음 입갱했을 때 간드레 불을 켜고 작업할 때의 이야기며 탄광의 역사를 늘어놓았다. 처음 그가 태백에 왔을 때 그 탄광은 사택이 없이 동료들과 탄광에서 나오는 피쪽으로 집을 만들고 신문지를 붙이고 그렇게 지냈단다.

정말 눈물이 흐를것만 같은 이야기였다. 나는 글쓰는 사람이 아니라 눈물 흘리도록 글을 쓰지 못해 아쉽다.

그러나 여기있는 이 사진을 통해 눈물흘려 주기를 바란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앞산이 보이는 터를 깎아 사택을 만든 곳이 훤히 보이는 산동네이다. 그곳에서 그들을 지켜보며 살고 있다. 언젠가 그 사택촌에 막장에서 일하다 죽은 젊은이의

장례식이 있었다. 마누라는 슬피울며 떠나가는 남편의 시신을 부여잡고 울고 있으나 어린 자식은 무슨 일인가 그저 어안이 병병한가보다.

나는 차마 그들에게 카메라를 갖다 들이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어쩌란 말이나?”내가 그들의 아픔을 얼마나 보이겠다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앞섰다.

그러나 남에게 보이고 싶은, 정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어떻게 보일까? 한장 한장 어렵게 찍은 것이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생각, 그것 가지고 뭘…….

그렇다. 어렵게 찍었다고, 남이 찍기 힘든 작업이라고 다 좋은것은 아니리라.

남들이 공감해 줄때 진정 내 작업을 인정받으리라. 우선 막장 사람들에게 보여 보자, 그래서 한장 한장 넘기며 그들의 눈치를 살폈다. 공감하는 듯 그들도 놀래는 표정이었다.

“이제 되었구나”라는 생각에 정리를 해 보았다.

지금은 볼 수 없는 막장의 모습, 훗노미(쇠꼬챙이)로 화약을 장진하기 위해 구멍을 뚫는 모습, 질통을 지고 탄을 운반하는 모습, 나무광차, 샤워시설이 없는 목욕장…….

이제 지난날의 모습을 정리하며 사실을 진실되게 기록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을 느낀다.

그동안 내 작업에 도움을 주신 막장 사람들에게 이 사진집이 혹시나 지난날의 아픈 추억을 떠올리는 계기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그들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온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앞으로 늘 나와 함께 할 이 기록들이 순간에 졸부가 된 그런 삶이아닌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한다. 이것이, 부족하지만 진실되고자 애썼던 기록의 의미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이 사진집이 빛을 발하기를 빌어본다.

막장사람들

초판발행 — 1991년 10월 일

발행인 — 장인원

발행처 — 태백문화원

강원도 태백시 황지1동 62-1

전화 (0395) 53 - 3161

사진 류제원

기획·사진설명 — 김영훈

인쇄 — 대성문화출판사

등록번호 제 49호

등록일자 1988년 5월 20일

사진제판 — 대성문화출판사

